원리

고전 시가

정답과 해설

I 고대 가요 · 향가

16쪽

01 공무도하가 / 정읍사

1. ④ **2.** ③ **3.** ① **4.** ⑤

(가)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서정 가요이며,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이다. 물에 빠져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체념, 슬픔이 담겨 있다.

- 갈래: 고대 가요 • 시대: 상고 시대
- 성격: 체념적, 애상적
- 주제: 임과 사별한 슬픔
- 특징: ①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임.
  ② 화려한 수식 없이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 충만한 사랑(1행) → 임의 부재(2행) → 죽음(3행)
- 구성: 1구 – 물을 건너는 임을 만류함.
  2구 – 물을 건너는 임(원망)
  3구 – 임이 물에 빠져 죽음.
  4구 – 임의 죽음에 대한 체념과 슬픔

(나) 어느 행상인의 아내, 「정읍사(井邑詞)」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달'에 의탁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 갈래: 고대 가요 • 시대: 삼국 시대(백제)
- 성격: 서정적, 기원적
- 주제: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
- 특징: ① 대조적 시어를 통해 남편의 무사를 비는 아내의 간절한 심정을 드러냄. ◤ 돌하 ↔ 즌 ᄃᆡ
  ②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남편의 안녕을 염려함. ◤ 드ᄃᆡ욜셰라(의구형 '-ㄹ셰라')
  ③ 여음을 제외하면 시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 3장 6구
- 구성: 기 –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함.
  서 – 남편의 안녕을 염려함.
  결 –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함.

1. (가)는 1구에서 언급된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말을 건네며 시상을 전개하고, (나)는 1구에서 언급된 '달'과 저자를 다니는 임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후렴구를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 ○, × | 나 ○, ×〕
› (나)에는 '어긔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와 같이 악률에 맞추어 부른 뜻이 없는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운율을 형성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후렴구를 찾아볼 수 없다.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 모두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인 반어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 등장하는 '물'은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나)의 '달'은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감정을 이입한 대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상승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 ○, × | 나 ○, ×〕
› (나)의 'ᄃᆞᆯ'은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화자가 하늘에 떠 있는 'ᄃᆞᆯ'을 향해 높이 돋아 달라는 기원을 한다는 점에서 상승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의 3구에서는 임이 물에 빠지는 데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하강의 이미지는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더욱 구체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가)의 화자는 '임'이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했으나 '임'은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만다. 화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임'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 3구의 '물'이므로, 이는 죽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1구에서 화자는 임에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말을 통해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1구는 아직 임과 이별한 상황이 아니므로, 1구의 '물'이 이별로 인한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구에서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희망을 환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④ 1구의 '물'보다는 2구의 '물'이 임과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
⑤ 1구의 '물'에도 임을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3. 'ᄃᆞᆯ'은 광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즌 ᄃᆡ'와 의미상 대립하고 있다. 즉 'ᄃᆞᆯ'은 밝게 비추는 존재로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고, '즌 ᄃᆡ'는 남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ᄃᆞᆯ'은 임이 '즌 ᄃᆡ'에 빠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은 임이 ㉡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③ ㉡에서 화자는 임과 만나지 않고 있으므로 ㉡에서 만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은 화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을 의미한다.
④ ㉡은 임이 화자를 그리워하는 공간이 아니다. 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다.
⑤ ㉡은 화자가 머리로 떠올린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에

감정을 이입하여 떠올린 공간은 아니다. ㉠은 광명의 이미지로 ㉡과 대조적 심상을 지니고 있다.

4. (나)는 배경 설화에서 행상을 떠난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느이다 노코시라'는 어느 곳에나 짐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임은 화자가 물을 건너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물을 건너 화자와 이별하게 된다. 이로 볼 때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에서는 자신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을 건넌 남편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4구에서는 임을 잃은 지극한 슬픔과 체념이 드러나고 있다. 노래를 마친 백수 광부의 아내가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배경 설화의 내용과 '어이할꼬'라는 표현을 함께 생각하면, 화자의 탄식과 체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④ 배경 설화를 통해 남편의 신분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으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저자(시장)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직 저자에 볼 일이 남아 있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내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8쪽

02 헌화가 / 제망매가

1. ① **2.** ⑤ **3.** ④ **4.** ②

(가) 어느 노인, 「헌화가(獻花歌)」

4구체의 향가로, 소를 몰고 가던 어느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벼랑에 핀 꽃을 꺾어 바치면서 불렀다는 노래이다.

- 갈래: 향가(4구체)
- 시대: 삼국 시대(신라)
- 성격: 민요적, 서정적
- 주제: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연정
- 특징: ① 가정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 나ᄅᆞᆯ 안디 붓그리샤ᄃᆞᆫ(부끄러워 하신다면)
  ② 연모의 정을 담은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냄. ◤ '고ᄀᆞᆯ'(꽃을)–수로 부인에 대한 연모의 정을 상징함.

(나)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며 부른 추모의 노래로,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향가(10구체)
- 시대: 삼국 시대(신라)
- 성격: 애상적, 종교적, 추모적
- 주제: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재회를 기약함.
- 특징: ①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함.
  ② 뛰어난 비유를 통해 10구체 향가의 서정성을 극대화함. ◤ 이른 ᄇᆞᄅᆞᆷ: 누이의 요절, ᄒᆞᆫ 가지: 한 부모
  ③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차원(불교의 윤회사상)에서 극복하고자 함. ◤ 9~10행: 불교적 믿음을 통해 재회를 다짐.

- 구성: 기 – 죽음의 허무함과 혈육의 정
  서 –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결 – 인간적 고뇌의 종교적 승화

1. (가)의 '나ᄅᆞᆯ 안디 붓그리샤ᄃᆞᆫ'은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이라는 뜻으로, 가정법을 사용하여 수로 부인을 향한 화자의 연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②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음보를 반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에서는 동일한 음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가)와 달리 대구를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에서는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을 지어 표현의 효과를 거두는 대구의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시적 공간은 '자줏빛 바윗가'로, 붉은색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적 배경의 험준함을 제시하여 화자의 순정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한 공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의문형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가 ○, × | 나 ○, ×〕
› (나)의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에는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꽃'은 수로 부인을 향한 노인의 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것은 수로 부인에게 구애를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와 같이 인간의 아름다움이 초월적 존재로부터 구애의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1구의 '지뵈 바회 ᄀᆞᄌᆞᆺ'(자주빛 바윗가)는 공간적 배경의 험준함을 제시하여 화자의 순정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나, 노인이 초월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자ᄇᆞᆮ온손'은 '잡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는 노인이 암소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수로 부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암쇼 노히시고'는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로 해석이 되는데, 이로 보아 '노히시고'의 주체는 수로 부인이다.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수로 부인에게 건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안디 붓그리샤ᄃᆞᆫ'는 '아니 부끄러워하시면'이란 의미로, 수로 부인이 나, 즉 노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이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꽃을 꺾어다 바치겠다는 뜻이므로, 노인이 자신의 행동을 수로 부인이 탐탁지 않게 여길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가논 곧 모ᄃᆞ론뎌'는 인생무상에 대한 비애를 나타내면서 삶과 죽음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낙구의 '아야'는 심화된 고뇌의 극한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자 종교적 초극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므로, '아야'를 통해 삶과 죽음의 거리감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A]에서 누이의 죽음을 직면하여 '생사의 길'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접하면서 '생사의 길'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A]에서 '나'가 '몯다 니르고' 간 것에 대해 비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B]의 '이른 ᄇᆞ라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때 이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떠나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③ [B]에서 'ᄠᅳ러딜 닙'이 'ᄒᆞᄂᆞᆫ 가지'에서 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죽은 이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혈육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C]의 '도 닷가 기드리고다'는 죽음에 직면한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죽음을 초월하며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4. (가)의 '나'(㉠)는 화자(노인)로, 수로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의 주체이고, (나)의 '나'(㉡)는 시적 대상인 죽은 누이로, 재회에 대한 소망의 대상인 객체이다.

오답 분석

① ㉠과 ㉡ 모두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③ ㉡은 떠나간 누이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다.

④ ㉠은 노인을 의미한다. 노인은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고자 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은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을 ㉠과 달리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점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쪽

03 찬기파랑가 / 모죽지랑가

1. ① **2.** ⑤ **3.** ② **4.** ⑤

(가) 충담사,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기개를 자연물에 빗대어 찬양한 노래로서, 높은 서정성과 숭고미를 자아내고 있다.

- 갈래: 향가(10구체)
- 시대: 삼국 시대(신라)
- 성격: 예찬적, 상징적, 추모적
-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찬양
- 특징: 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세련되게 예찬함.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돌, 믈서리, 즈벼긔, 자싯가지'라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찬양함.
  - ②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냄.
  - ③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순수 서정시임.
- 구성: 1~5구(기) –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
  6~8구(서) – 기파랑을 좇고자 하는 마음
  9, 10구(결) – 높은 인품의 찬양과 흠모의 정

(나)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신라 효소왕 때 죽지랑(竹旨郎)의 낭도(郎徒)인 득오가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었다는 작품이다.

- 갈래: 향가(8구체)
- 시대: 삼국 시대(신라)
- 성격: 서정적, 예찬적, 추모적
- 주제: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예찬과 그의 죽음에 대한 추모
- 특징: ①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취함.
  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고조됨.

감정의 극대화 ↓	과거	• 죽지랑과 보냈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함. • 죽지랑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림.
	현재	• 죽지랑이 죽고 없는 현재를 슬퍼하며 재회를 소망함.
	미래	• 죽지랑과의 재회를 확신함.

- 구성: 1, 2구 – 죽지랑과 함께한 과거에 대한 그리움
  3, 4구 –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림.
  5, 6구 –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7, 8구 –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과 의지

1. (가)는 낙구에 '아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파랑을 추모하며 그 인품을 예찬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나)는 감탄사를 사용한 낙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② (나)는 (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9, 10구를 보면 잣가지(푸른색)와 눈(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서는 달, 물가(냇물), 자갈, 잣나무 가지와 같은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도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자연물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에서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이루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 모두에서는 대상을 추모하는 것은 나타나나, 화자와 대상이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 '다봇 ᄆᆞᄉᆞᆯ'은 화자가 죽지랑과의 재회를 기대하는 공간으로, 저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저승에서 만날 것을 기대

한다는 것은 현재 화자가 죽지랑과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 화자와 죽지랑의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분석

① ㉠은 광명과 염원의 대상으로, 기파랑을 빗대어 제시한 존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 통해 기파랑이 우러러보이는 존재임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은 맑고 깨끗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파랑의 맑은 품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화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공간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기파랑을 추앙하고 있는 공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잠깐만이라도 죽지랑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이다. 죽지랑을 향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A]와 [B]는 모두 시상의 전개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에서는 기파랑의 인격을 잣나무 가지에 비유하여 그의 정신적 숭고함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고고한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그리고 [B]는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저승에서라도 죽지랑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분석

① [A]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추모의 정이 집약된 구절이다. 따라서 대상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B]는 죽지랑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죽지랑의 처지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A]를 말할 때 (가)의 화자는 기파랑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태이며, [B]를 말할 때 (나)의 화자도 죽지랑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A], [B]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가)의 '모ᄉᆞ미 ᄀᆞᆯ'은 화자가 흠모하며 예찬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모ᄉᆞ미 녀올 길'은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가는 길을 의미한다.

오답 분석

① (가)의 'ᄇᆞ라매'는 '바라보매'라는 뜻으로, 하늘의 달을 바라보는 화자의 행동을 나타낸다. 화자는 달을 보며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간 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는 죽지랑이 살아 있던 시절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죽지랑과 함께하던 시절인 봄날을 회상하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늦겨곰'은 '흐느끼며'를 뜻하므로 기랑의 부재로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의 '우리 시름'은 '울며 시름하는구나'라는 의미이므로 죽지랑의 부재로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가)의 '기랑ᄋᆡ ᄌᆞᄉᆡ'는 '기랑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기억하는 기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의 '아ᄅᆞᆷ 나토샤온 / ᄌᆞᄉᆡ'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라는 뜻으로, 생전의 죽지랑의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Ⅱ 고려 가요 · 경기체가

24쪽

01 청산별곡 / 동동

1. ④ **2.** ② **3.** ② **4.** ③

(가)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문학성과 음악성이 돋보인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 주제: ① 삶의 고뇌와 비애
  ② 실연의 슬픔
  ③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 특징: ① 두드러진 운율적 효과와 정제된 형식미를 지님.
  ◤ • 분연체로 각 연마다 지니는 후렴구
  • 'ㄹ'음과 'ㅇ'음의 조화
  • 3·3·2조의 3음보 율격, 'a-a-b-a' 구조 사용
  ② 고도의 상징성으로 문학성을 높임. ◤ '새': 시적 화자의 비애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전달함. '청산', '바ᄅᆞᆯ':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이상향, 도피처 등의 의미를 나타냄.
  ③ 작품의 대칭적 구조

1연	청산/머루와 다래	6연	바다/나문재와 굴과 조개
2연	새(삶의 비애)/자고 니러 우니노라	5연	돌(운명적 비애)/마자셔 우니노라
3연	가던 새(속세에의 미련)	7연	장대에 오른 사슴(기적을 바라는 절박함)
4연	밤(고독의 시간)/엇디 호리라	8연	술(고통의 일시적 해소)/엇디 ᄒᆞ리잇고

  ④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
  ◤

화자	가던 새	잉무든 장글
유랑민	갈던 밭이랑	녹슨 쟁기
실연한 여인	떠나는 임(비유)	녹슨 은장도
좌절한 지식인, 변방의 병사	날아가던 새	녹슨 병기

- 구성: 1연 – 청산에 대한 동경
  2연 – 삶의 고독과 비애
  3연 –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4연 –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5연 –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
  6연 – 바다에 대한 동경

7연 –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
8연 –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나) 작자 미상, 「동동(動動)」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 노래로서,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열두 달의 풍속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연가적, 민요적, 이상적
- 주제: 임(임금)에 대한 송축과 연모
- 특징: ① 분연체 형식으로 후렴구를 사용함.
  ② 세시 풍속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나타냄.

화자	소재	세시 명절	정서와 태도
정월	나릿믈	–	외로움
2월	등(燈)ㅅ블	연등제	임에 대한 예찬
3월	돌욋곶	–	임에 대한 예찬
4월	곳고리새	–	임에 대한 원망
5월	아춤 약(藥)	수릿날(단오)	임의 장수 기원

  ③ 다양한 사물에 임을 빗대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냄. ◤ '노피 현 / 등(燈)ㅅ블': 임의 고매한 인품, '만춘(滿春) 돌욋곶': 임의 아름다운 모습
- 구성: 서사 – 임(임금)의 덕과 복을 빎.
  정월령 –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이월령 – 임의 빼어난 인품 찬양
  삼월령 – 아름다운 임의 모습 찬양
  사월령 –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
  오월령 – 임의 장수(長壽) 기원

1. (가)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를, (나)는 '아으 동동(動動)다리'를 각 연에 규칙적으로 후렴구로 넣어 연을 구분하고 리듬감을 형성하여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 | 나 ○,×]
› (가)는 자연물인 '새'를 감정적 동일시 대상으로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비애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대상에 감정 이입을 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대칭 구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나 ○,×]
› (가)는 1~4연과 5~8연이 서로 대칭되어 있는 구조로, 각각 '청산'과 '바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대칭 구조와 화자의 내적 갈등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 | 나 ○,×]
› (가)와 (나) 모두에서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 ○,× | 나 ○,×]
›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월별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시어가 나타나지만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작품은 세시 풍속에 따라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정이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다.

2. ㉡에는 이상향을 향하고는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날 뿐, 속세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③ ㉢의 '밤'은 '오리도 가리도 업슨'(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고독한 시간으로, '또 엇디 호리라'(또 어찌할 것인가?)라는 의문형을 통해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든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④ ㉣은 '청산'과 함께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새로운 도피처인 이상향을 의미한다.
⑤ 사슴(사슴으로 분장한 광대)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켠다는 ㉤의 비현실적인 접근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 (나)의 3연의 '노피 현 / 등(燈)ㅅ블'은 임의 빼어난 인품을 빗대어 표현한 사물이다.

오답 분석

① 2연의 '나릿므른(냇물)'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로,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킨다.
③ 4연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만춘 돌욋고지'에 빗대어 임의 용모를 예찬할 뿐, 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④ 5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낼 뿐, 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측은함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6연에서 화자는 '수릿날 아춤'에 '약'을 받들어 올림으로써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4. 화자가 '좌절한 지식인'이라면, '설진 강수'를 가까이 하는 모습은 속세의 번뇌로 인한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술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화자가 '유랑민'이라면 머루나 다래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음식이므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이러한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괴로운 삶을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실연한 사람'이라면 바다는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현실을 떠나 도피하려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1연은 임(임금)의 덕과 복을 빌고 있는 내용으로, 나머지 연들에서 나타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는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연이 (나)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⑤ 2연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을 말하다가 3연에서 임의 인품을 찬양하는 시상의 흐름은 이질적인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통일성을 떨어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02 정석가 / 정과정

1. ② 2. ③ 3. ⑤ 4. ④

(가)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서정적, 민요적
-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특징: ①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림. ◤ 유덕(有德)ᄒᆞ신 님믈 여ᄒᆡ ᄋᆞ와지이다
  ② 작품의 전반적인 주제와 차이가 있으며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서사' 부분이 삽입됨(조선 건국 후 고려 가요가 궁중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짐.).
  ③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며 시상을 전개함.
  ◤

불가능한 상황	행위와 의도
구운 밤에 싹이 나면	유덕하신 임과 이별하겠다. → 임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옥으로 새긴 연꽃에서 꽃이 피면	
무쇠로 만든 옷이 헐면	
무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으면	

  ④ 과장법, 반어법 등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음.
  ⑤ 유추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짐.: 임과 내가 떨어져 살아감.] → ② [끈이 끊어지지 않음.: 임에 대한 '나'의 믿음은 그치지 않음.]
- 구성: 서사 – 태평성대를 바람
  본사 1 – 구운 밤에 움이 돋아야 임과 이별할 수 있음.
  본사 2 –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어야 임과 이별할 수 있음.
  본사 3 – 무쇠로 만든 옷이 헐어야 임과 이별할 수 있음.
  본사 4 – 무쇠로 만든 소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임과 이별할 수 있음.
  결사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함.

(나) 정서, 「정과정(鄭瓜亭)」

고려 가요 중 유일하게 작가가 알려진 작품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임금에게 선처를 청하기 위해 지은 노래이다.

- 갈래: 향가계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애상적
- 주제: 자신의 결백과 임(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 특징: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표출함. ◤ 접동새: 감정 이입의 대상 – '한(恨)'의 상징
  ② 「만전춘별사」와 비슷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음. ◤ 넉시라도 님은 ~ 천만(千萬) 업소이다: 「만전춘별사」 3연과 유사. 고려 가요가 민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서가 당시 구전되던 민요의 노랫말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③ 형식 면에서 고려 가요의 전통과 향가의 전통을 모두 잇고 있음. ◤ 아소: 감탄사. 금기의 뜻 → 향가의 흔적(10구체 향가의 감탄사)
- 구성: 기 – 자신의 처지와 결백 호소
  서 – 결백에 대한 해명
  결 – 임이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함.

1. (가)의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여 임(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는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화자는 임과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신을 모함한 이들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가)와 (나) 화자 모두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③ 임의 부재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별하겠다고 말하며 이별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임과의 부재 상황은 아니다. (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 자신의 결백과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는 이별의 상황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이상과 현실의 다름으로 인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2. 〈보기〉에서는 고려 가요가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된 의도와 맥락을 제시하여, (가)의 고려 가요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충의'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가)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상도 되지만, 한 임금만을 섬기겠다는 의미로도 감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 '바회(바위)'에 ㉡ '디신ᄃᆞᆯ(떨어진들)'은 임(임금)과의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으로 풀이되고, 이것은 다시 '즈믄 ᄒᆡ(천 년)'을 '외오곰(외로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이별과 같은 부정적 상황의 지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긴(끈)'이 그츠리잇가(끊어질리랴 있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임(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의'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는 작가가 왕에게 '돌이켜 들으셔서 사랑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왕이 작가에게 약속

했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작가가 왕에게 자신을 다시 사랑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과거에 했던 약속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심정이라고 봐야 한다.

오답 분석

①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작가는 유배지에서 이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1행에서 '나'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낸다는 것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겪는 상황과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3행과 4행에서 작가는 (나를 헐뜯는 말은) 옳지 않으며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새벽녘의 별과 달)'이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잔월효성'은 작가의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자신은 죄도 허물도 전혀 없다(7행)며, 이는 뭇 사람들의 모함(8행)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ᄆᆞᆯ**힛 마리신뎌'는 왕에게 작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라는 말은 작가의 원망이 담긴 시구로,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머지않아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임금에 대한 원망이자, 그 말을 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을 들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별하겠다며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보기〉는 중장에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과장적이고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기 분석

작자 미상, 「개야미 불개야미」

개미를 제재로 하여 남을 모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과장적, 해학적
- **주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
- **현대어 풀이**: 개미, 불개미, 잔등 똑 부러진 불개미 / 앞발에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 난 불개미가 광릉 샘 고개를 넘어 들어가 호랑이 허리를 물어 추켜들고 북해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임이시여, 임이시여. / 모든 사람이 온갖 말을 해도 임이 (새겨서) 짐작하소서.
- **특징**: 화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통하여 '온 놈'이 하는 말이 거짓임을 호소하고 임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소망함.

불가능한 상황	→	다른 사람의 참언(讒言: 남을 헐뜯어 거짓으로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침.)을 무조건 믿지 않기를 바람.
등이 부러지고 피부병까지 있는 보잘것없는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북해를 건넘.		

- **시상 전개 과정**

초장	반복과 확장을 통해 대상을 묘사함.
중장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과장적이고 점층적으로 제시함.
종장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임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소망함.

오답 분석

① 〈보기〉는 중장에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과장적이고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점층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삼동(三同)'을 '세 묶음' 혹은 '추운 겨울'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보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임이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고, 〈보기〉는 임의 올바른 판단을 소망하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나)의 '졉동새'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느낀 감정 이입된 대상이지만, 이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는 등이 부러지고 피부병까지 있는 보잘것없는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북해를 건너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참언을 무조건 믿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구성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0쪽

03 가시리 / 서경별곡

1. ② **2.** ④ **3.** ② **4.** ②

(가) 작자 미상, 「가시리」

간결한 형식과 소박하고 함축성 있는 시어를 통해 전통적 민요의 특질과 한(恨)의 정조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서정적, 애상적, 여성적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① 반복법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드러냄.
  ②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함.
  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흥을 돋우고 율격을 형성함. ◤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
  ④ 종결 어미 '-ㄹ셰라'를 사용함. ◤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로 해석되는데, 염려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붙여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 구성: 기 –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승 – 임에 대한 원망의 고조
  전 – 이별 상황에 대한 절제와 체념
  결 – 임이 곧 돌아오기를 소망함.

(나)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을 지닌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고려 가요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이별가, 남녀상열지사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①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음률을 맞추기 위한 여흥구를 사용함. ◤ 아즐가

② 경쾌한 리듬감을 더해 주는 후렴구를 사용함. ◤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③ 각 연마다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적층 문학의 성격을 보임. ◤ 구스리 아즐가 ~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 「정석가」의 6연과 유사함. →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거나 오랜 전승 과정에서 작품에 첨삭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구성: 기 –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모의 정
서 – 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맹세
결 – 떠난 임에 대한 불신과 원망

1. (나)의 3연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반면 (가)의 화자는 이별 앞에서 자기희생적이고 감정을 절제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오답 분석

① (나)에 비해 (가)의 화자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 ○, × | 나 ○, ×〕

› (가)의 화자는 이별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화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질투가 나타나 있다. 〔가 ○, × | 나 ○, ×〕

› (나)의 4연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 ᄇᆡ 타 들면 것고리이다'에서 임이 새로이 좋아하는 여인에 대한 질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이별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4연에는 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나)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서는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서'에서 임이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질삼뵈 ᄇᆞ리시고', '우러곰 좃니노이다'에서 자신의 생업마저 버리고 임을 따르겠다고 하는 데서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2. '사공'은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하는 매개로 화자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오답 분석

① 여기서 '질삼뵈'는 '길쌈하던 베'인데, 당시 여인들의 생업을 상징하고 있다. 이 시어를 통해 길쌈하던 베를 버리는 주체, 즉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한다.

② '바위'는 임과의 사랑을 상징하는 '구슬'에 시련을 가하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임의 사랑에 있어 시련이나 장애물을 의미한다.

③ '대동강'은 임이 화자를 두고 건너편으로 떠나가는 장소이므로, 시적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이별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배를 타면 꺾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다른 여인, 즉 임이 새롭게 좋아하게 될 여인을 비유하며, 이는 화자에게는 질투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3. 〈보기〉는 (가)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그리고 후렴구가 덧붙여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의 후렴구는 평민 음악이었던 이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빠져도 내용에 영향이 없는 여음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렴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매 연마다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평민들의 솔직한 정서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있다.

③ '대평성대(大平盛代)'는 이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임금의 선정을 칭송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작품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여음구이다.

④ '잡ᄉᆞ와 두어리ᄆᆞᄂᆞᆫ'을 통해 화자는 떠나는 임을 꼭 붙잡고 싶다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과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 해석된다. 두 해석 모두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4. [A]의 '신(信)'과 [B]의 '붉은 마음'은 모두 임을 향한 변하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바위'는 [A]와 [B] 모두에서 '구슬'을 깨뜨리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으므로, '신(=믿는 마음)'과 '붉은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 시련과 고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과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A]와 [B]에서 '구슬'은 바위에 떨어져 깨질 수 있는 대상이지만,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로 보아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라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신(信)'을 통해, [B]에서는 '붉은 마음'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A]와 [B] 모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A]와 [B]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각각 고려 가요와 한시의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A]에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라는 여음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B]에는 특별한 여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32쪽

04 한림별곡

1. ⑤ 2. ① 3. ② 4. ②

한림 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

고려 고종 때 한림원의 선비들이 지은 노래로, 그들의 문학적 경지와 자긍심, 향락적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갈래: 경기체가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예찬적, 귀족적, 향락적, 풍류적
• 주제: ① 신진 사대부의 자긍심과 의욕적 기개 칭찬
② 귀족들의 향락적 생활과 풍류
• 특징: ① 3·3·4조의 3음보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나열과 집약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시적 대상인 사물이나 경치를 나열하고, 각 연의 끝에 '위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말이 되풀이 됨.
②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냄.
③ 생경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여 자신의 지식을 자랑함.
• 전체 구성(수록: 1, 2, 4, 8장)

장	소재	중심 내용	세계관
1장	시부(詩賦)	문장가·시인 등의 명문장 찬양	학문에 대한 문인들의 기개와 그들의 의식 세계 예찬
2장	서적(書籍)	지식 수련과 학식에 대한 자긍심	
3장	명필(名筆)	유행 서체와 필기구 등 명필 찬양	
4장	명주(名酒)	상류 계층의 주흥(酒興) 예찬	향락적이고 풍류적인 생활 과시
5장	화훼(花卉)	화원(花園)의 경치 예찬	
6장	음악(音樂)	흥겨운 주악(奏樂)의 흥취 예찬	
7장	누각(樓閣)	후원(後園)의 경치 감상	
8장	추천(鞦韆)	그네뛰기의 흥겨운 광경과 풍류 생활 예찬	

1. 이 글에서는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열거의 방식을 사용하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 ×]
› 제1장은 명문장들, 제2장은 서적들, 제4장은 명주들, 제8장은 그네뛰는 광경을 나열하며 '위 ~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집약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②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 ×]
› 제1장의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는 '아, 나까지 모두 몇 분입니까?'의 의미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③ 규칙적인 음수율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
› 3·3·4조의 3음보 율격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구절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 ×]
› '금ᄒᆞᆨᄉᆞ(琴學士)의 옥슌문ᄉᆡᆼ(玉筍門生)', '대평광긔(大平廣記) ᄉᆞᄇᆡᆨ여권(四百餘卷)'을 반복하여 뛰어난 문하생, 많은 독서량을 강조하고 있고, '샥옥셤셤(削玉纖纖) 솽슈(雙手)ㅅ길헤'를 반복하여 풍류 생활을 찬양하고 있다.

2. ㉠에서 '위'는 감탄사이고,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그 어떠합니까'의 의미로,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제시된 상황이 매우 훌륭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흥 사대부들의 의욕적인 기개와 의식 세계를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② 신흥 사대부 계층의 능력과 삶에 대한 자신감, 긍지를 표현한 것으로 제시된 상황이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③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는 '경기하여가, 경기체가'라는 갈래적 명칭을 정하게 된 주요한 구절이다.
④, ⑤ 전체적인 작품의 구조는 나열과 집약이 나타나며 나열은 신흥 사대부들의 학식과 문인들의 재주를 자랑하기 위한 명문장이 열거되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흥취가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3. 다른 장과 비교할 때 '남긔', '홍실', '글위', '혀고시라 밀오시라' 등의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여 그네를 뛰며 노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그네 뛰는 광경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당당당'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당츄ᄌᆞ'의 '당'을 반복한 것이다.
③ 그네 뛰며 노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은 드러나지만 추상적인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대비되는 시어와 현실에 대한 아쉬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당당당'에서 운율감이 돋보이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여음구로 쓰이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남녀의 즐거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4. 제1장의 '위 시댱(試場)ㅅ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에서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매우 훌륭한 모습이라며 평가하고는 있으나, 이미 배출한 관료들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제1장에는 원슌문, 인노시 등 학자들을 언급하며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라는 표현으로 작가를 비롯한 신흥 사대부들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 '당한셔', '장로ᄌᆞ' 등은 수많은 명저를 나열하며 학식에 대한 과시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황금쥬', '빅ᄌᆞ쥬' 등 다양한 명주를 언급하며 '위 권상(勸上)ㅅ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위 취(醉)혼ㅅ 경(景) 긔 엇더ᄒᆞ니잇고'라는 표현으로 그에 따른 흥취와 풍류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남녀가 '홍글위'를 타며 즐기는 상류층의 풍류 놀이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Ⅲ 한시 · 악장 · 언해

36쪽

01 송인 / 야청도의성

1. ② **2.** ③ **3.** ③ **4.** ②

(가) 정지상, 「송인(送人)」

이별의 한을 자연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고, 도치와 과장을 통해 대동강물에 비유하여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히 물의 이미지를 '비 → 대동강 물 → 물결'로 이어지게 하면서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과 결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정한을 고조시키고 있다.

- 갈래: 한시(7언 절구)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송별시, 서정적, 애상적
- 주제: 이별의 슬픔
- 특징: ① 서경과 서정의 세계를 함께 보여 줌.
  ② 대조, 도치, 과장을 통해 이별의 한을 극대화함. ◤ 1, 2행: 대조 / 3, 4행: 도치 / 4행: 극대화된 이별의 정한(과장)
  ③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함. ◤ 풀빛이 짙었는데, 푸른 물결 등
- 구성: 기 – 막 피어나는 봄의 서경
  승 – 임을 보내는 슬픔
  전 – 이별의 슬픔 심화
  결 – 이별의 정한과 눈물

(나)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우리 문학사 중 유일한 발해 작품으로, 작가가 발해국의 부사(副使)로 일본에 갔다가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 갈래: 한시(7언 배율)
- 시대: 발해
- 성격: 서정적, 애상적
- 주제: 타국에서 느끼는 고국(고향)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다듬이 소리'를 매개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함. ◤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② 청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 구성: 1, 2행 – 타국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3~8행 – 우연히 다듬이 소리를 듣게 됨.

1. (가)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하여 나타내었고, (나)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고국(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오답 분석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대동강 물'을 활용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의 화자는 타국에서 고국(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서 '대동강 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임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2. ㉡은 화자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푸른 물결'과 대응한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비 갠 자연의 풍경은 화자의 애상감을 자극하는 대조적인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② 해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떠나가는 이들이 애절한 이별의 눈물을 흘릴 것이니, 대동강 물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설의적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을 '나그네'로 지칭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에서 고국에 돌아가고픈 마음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⑤ '긴긴 밤 지루하게 앉아'에서 '시름'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 (가)에서 '슬픈 노래'는 임을 떠나보내는 애절한 마음을 심화시키는 소재이고, (나)에서 '다듬이 소리'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4. '바람'은 '다듬이 소리'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소재로, 화자의 소망과는 연관이 없다.

오답 분석

① '달'과 '은하수'는 애상감을 불러일으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③ '별이 낮도록'은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화자의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고국을 떠나온 뒤'는 화자가 발해국의 부사로 일본에 건너가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 고향에서 듣던 다듬이 소리와 현재 듣는 다듬이 소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02 제가야산독서당 / 부벽루

1. ② 2. ② 3. ⑤ 4. ③

(가)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자연의 물소리에 의탁하여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를 멀리하고자 하는 은둔의 결의를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한시(7언 절구)
- 시대: 삼국 시대(신라)
- 성격: 서정적, 상징적
- 주제: 세속과 멀어져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심경
- 특징: ① 청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 산을 울리는 물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
  ② 자연의 물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봉우리에 울리니 ↔ 말, 시비하는 소리
  ③ '물'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함. ◤ 흐르는 물: 화자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소재
- 구성: 1구(기) – 산골을 흐르는 거센 물소리
  2구(승) –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는 물소리
  3구(전) – 세상의 시비를 멀리하려는 마음
  4구(결) – 속세를 벗어나 은둔하려는 마음

(나) 이색, 「부벽루(浮碧樓)」

융성했던 과거의 왕조를 회고하면서 권력과 인간사의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한시(5언 율시)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회고적, 애상적
- 주제: ① 인간 역사의 무상함에 대한 한탄
  ② 지난 역사의 회고(감회)와 고려 국운의 회복 소망
- 특징: 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② 쓸쓸한 어조를 사용하여 인간 역사의 무상함을 표현함. ◤ 휘파람 부노라니: 무상감을 드러냄.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인간 역사의 무상함과 대비되는 자연의 의구함.
- 구성: 1, 2구(수) – 부벽루에 오름.
  3, 4구(함) – 폐허가 된 부벽루 주변의 쓸쓸한 풍경
  5, 6구(경) – 과거에 대한 회상과 인생의 무상감 토로
  7. 8구(미) – 의구한 자연에 대한 감회

1. (나)에서는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에서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가)에서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역설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분석

①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미친 듯이 내뿜어'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산골을 흐르는 거센 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가 ○, × | 나 ○, ×〕

› (나)의 '텅 빈 성엔 조각달 떠 있고', '천 년의 구름', '바위는 늙었네'에서 시간의 흐름을 자연물을 통해 시각화하여 세월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시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시비하는 소리'와 '흐르는 물', (나)의 '기린마, 천손'과 '산, 강'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물소리,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나)의 '휘파람'은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 '물'은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관련되는 소재이고, ⓑ '천손'은 영웅의 등장을 바라는 화자의 소망과 관련되는 소재이다.

오답 분석

① '물'은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지 않고, '천손'은 화자의 분신을 상징하지 않는다.

③ '물'이 화자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보기 어렵고, '천손'이 화자와 대상을 연결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물'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고, '천손'이 화자의 자조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천손'은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투영한 소재라고 할 수 있으나, '물'은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3. ㉠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림을 두려워하기에'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4. (나)의 '조각달'은 퇴락한 부벽루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낀 쓸쓸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소재이지,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소재는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지나다가', '잠시'는 이색이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 부벽루에 들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텅 빈 성'은 황폐해진 고구려의 성인 평양성으로, 쇠약해진 고려의 현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바위는 늙었네'는 오래된 돌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고 있다.

⑤ '휘파람 부노라니'는 부벽루를 보며 느낀 작가의 쓸쓸한 심정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03 사리화 / 보리타작

1. ② 2. ③ 3. ④ 4. ③

(가) 이제현, 「사리화(沙里花)」

고려 말기 학자인 이제현이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관(官)의 수탈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 갈래: 한시(7언 절구)
- 시대: 고려 후기
-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 주제: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에 대한 고발
- 특징: ① 탐관오리의 횡포를 참새에 비유함. ◤ 黃雀(황작): 참새
  ②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을 고발함. ◤ 참새(탐관오리, 지배층) ↔ 늙은 홀아비(농민, 백성)
  ③ 탐관오리가 수탈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풍자함. ◤ 참새가 농사의 결과물(벼, 기장)을 다 없애는 행위 = 탐관오리가 백성(농민)을 착취하는 모습
- 구성: 1, 2구(기·승) –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
  3, 4구(전·결) – 수탈당하는 백성의 삶과 그에 대한 연민

(나)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보리를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한시로, 원제는 '타맥행(打麥行)'이다. 한시의 한 체인 '행(行)' 형식을 사용하여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농민의 삶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벼슬에 집착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 갈래: 한시[행(行)]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사실적, 묘사적, 반성적
-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보고 얻은 삶의 깨달음
- 특징: ① 농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 낟알, 보리 티끌 등
  ②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노동 현장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 1~4행: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③ 대조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냄. ◤ 낙원 ↔ 벼슬길
- 구성: 1~4구(기) –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5~8구(승) –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정경
  9, 10구(전) – 정신과 육체가 합일된 노동의 기쁨
  11, 12구(결) – 관직에 몸담은 자신에 대한 반성

1. (가)는 참새가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는 모습, (나)는 농민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 ○, × | 나 ○, ×〕
›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와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 ○, × | 나 ○, ×〕
›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지만 정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의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설의적 의문을 통하여 벼슬길을 좇는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문답 형식을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화자는 참새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며 참새, 즉 탐관오리의 수탈과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2. ㉡ '막걸리'는 노동을 흥겹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자 농부의 소박한 삶과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오답 분석

① ㉠이 아니라 ㉡이 소박한 삶의 모습과 연결되는 소재이다.
② ㉠, ㉡ 모두 화자의 풍류와 관련이 없다.
④ ㉠은 노동 후의 한가로움과 관련이 없고, ㉡은 노동할 때와 관련이 있다.
⑤ ㉠, ㉡ 모두 자연 친화적인 삶과 관련이 없다.

3. (나)에서는 화자가 벼슬길에 얽매였던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에서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관찰하며 노동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입장에 있다.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에서 화자는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의 의미를 화자의 해설자를 통해 설명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을 헤매리오'에서 화자는 벼슬을 좇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로 볼 때 적절하다.

4. (가)의 '참새'는 탐관오리, '홀아비'는 힘없는 농민을, (나)의 '낙원'은 이상향, '벼슬길'은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의미하므로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대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분석

'벼'와 '기장'은 모두 농민들이 힘써 얻은 결실을 의미하는 말로, 대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의 '농사 – 밭', (나)의 '보리밥 – 보리 티끌' 모두 대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쪽

04 용비어천가 / 춘망

1. ③ 2. ④ 3. ② 4. ⑤

(가)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조선 세종 때 쓰인 이 작품은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또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으로, 조선 건국을 찬양하고 후대 왕에게 왕권 수호를 권계하는 송축가이다.

• 갈래: 악장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찬양적, 송축적
•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사적 찬양 및 후왕에 대한 권계
• 특징: ① 주로 2절 4구의 대구 형식을 취함.
② 〈제2장〉은 고도의 비유적 표현이 고유어로만 쓰였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뛰어남.
③ 〈제125장〉은 후세 왕에 대한 경계가 중국의 고사와 설의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음.
④ 대구법, 영탄법, 설의법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함.
• 전체 구성

서사 (제1, 2장)	→	본사 (제3~109장)	→	결사 (제110~125장)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 및 송축		태조의 선조인 사조(四祖)와 태조, 태종의 사적 찬양		후왕에 대한 권계

* 〈제125장〉 낙수(洛水)예 ~ 산행(山行) 가 이셔: 중국 하나라 우왕의 손자인 태강왕이 정사에 게으르고 사냥에 절도가 없어서 낙수의 남쪽까지 가서 백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궁(窮)이라는 곳의 제후인 예(羿)가 태강왕을 하북에서 막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폐위시킨 고사를 인용함.

(나) 두보, 「춘망(春望)」

전란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작가의 심정을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언해(한시, 5언 율시) • 출처: 『두시언해』 초간본
• 성격: 애상적
• 주제: 전란(전쟁)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선경 후정의 구성에 애상적 정조를 잘 담아냄.
② 대구법 및 자연과 인간사의 대조로 주제를 강조함. ◤ 1, 2행: 대구법, 인생무상, 맥수지탄
③ 주객이 전도된 표현과 과장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3행(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4행(새소리도 내 마음을 놀라게 한다): 주객전도된 표현, 8행(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 과장을 통해 객지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을 드러냄.
• 구성: 수 – 전란으로 인한 폐허
함 – 전란으로 인한 상심
경 –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 – 늙어감에 대한 탄식

1. (가)의 제125장 '님금하 아ᄅᆞ쇼셔'에서 '님금'이라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임금에 대한 권계를 나타낸 부분으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 ×]
› (가)의 제2장에서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 고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
› (가)의 제125장에서 중국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나): 선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 (나)는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를 표현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 대비되는 모습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
› (나)에서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나라의 모습과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여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봉화'는 '나라에 병란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인데, 이러한 봉화가 석 달을 이었다는 것은 전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열매'를 꽃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연상한 것과 고독한 처지에 있는 화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② '한강'을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연상한 것과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 것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③ '새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
⑤ '편지'를 만금을 주고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적절하지만,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은 '옛날의 성인의 하신 일들과 부절을 합친 것처럼 꼭 맞으시니'라는 의미로, 백성을 다스릴 때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분석

① '천복(天福)'을 통해 조선의 건국을 하늘의 복이라고 하며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샘물이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는 모습을 통해 작은 물이 큰 물이 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조선의 발전을 송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성 안을 보니 풀과 나무만 무성하다는 말을 통해 전란으로 폐허가 되어 초목만 무성한 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머리가 센 것은 덧없이 늙어 버린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한탄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미드니잇가'는 후왕에 대한 권계를 나타낸 부분으로,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② 튼튼한 근원을 지닌 '나무'와 '물'을 통해 조선의 기틀이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조선의 왕업이 영원무궁하기를 송축하고 있다.
③ '한수(漢水) 북(北)'은 조선의 새로운 수도로서의 한양으로,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④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대함에 있어 늘 성실해야 함을 뜻하는 말로, 왕들이 지켜야 하는 덕목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대부로서 왕을 보필하는 신하의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정치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시조

46쪽

01 수양산 ᄇᆡ라보며 / 방 안에 켜 있는 촉불/ 오백 년 도읍지를 / 눈 마ᄌᆞ 휘여진 ᄃᆡ를

1. ④ **2.** ③ **3.** ③ **4.** ③

(가) 성삼문, 「수양산(首陽山) ᄇᆞ라보며」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 대군을 임금으로 섬길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지은 '절의가'이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절의가, 결의적
- 주제: 굳은 절개와 지조
- 특징: ① 고사의 사용과 '상식 뒤집기'를 통해 의미를 강화함. ◤ 지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백이와 숙제를 오히려 비판하여 자신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강조함.
  ②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뜻을 분명히 드러냄. ◤ 수양산: ① 백이와 숙제가 절의를 지킨 공간 ② 수양 대군(세조) / 채미: ① 고사리를 캐어 먹음 / ② 수양 대군의 녹을 먹음. 뉘: ① 주나라 무왕 ② 수양 대군
  ⇒ 화자는 수양 대군에게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냄.
- 구성: 초장 – 수양산(수양 대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탓함.
  중장 – 백이·숙제가 고사리로 연명한 것을 비판함.
  종장 – 백이·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나) 이개, 「방(房) 안에 켜 있는 촉(燭)불」

촛불을 의인화하여 임과 이별하는 슬픈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자는 수양 대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과 이별하는 마음을 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는데, 겉으로는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속은 타들어 가는 화자의 충정심이 잘 드러나 있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절의가, 상징적
- 주제: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
- 특징: ① 무생물인 촛불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촉(燭)불 눌과 이별(離別)하였기에
  ② 섬세한 감각과 완곡한 표현 속에서 굳은 절의와 충정을 드러냄.
  ③ 초가 타는 형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슬픔을 표현함. ◤ 저 촉(燭)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구성: 초장 – 방 안의 외로운 촛불
  중장 – 타들어 가는 촛불의 겉과 속
  종장 – 촛불과 같은 화자의 심경

(다) 길재,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를」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회를 노래한 '회고가(懷古歌)'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회고적, 감상적
-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 특징: ① 불변하는 자연과 유한한 인간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나타냄. ◤ 의구ᄒᆞᆫ 산천(자연) ↔ 간데없는 인걸(인간사)
  ② 종장 첫 구에 감탄사를 사용함. ◤ 어즈버
- 구성: 초장 – 말을 타고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봄.
  중장 – 자연은 그대로이나 인걸은 없는 옛 도읍지의 모습
  종장 –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

(라) 원천석, 「눈 마ᄌᆞ 휘여진 ᄃᆡ를」

눈 속에서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에 의탁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화자의 지조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조에서 'ᄃᆡ'는 내려 쌓인 눈 때문에 휜 것처럼 보이는 대나무이다. 화자는 대나무가 곧게 뻗어 있지 않고 휘었다며 비난하는 이들에게, 만일 눈 속에 굽을 정도로 하찮은 절개라면 대나무가 눈 속에서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나무가 지닌 세한 고절로서의 풍모를 예찬하고 있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절의가, 예찬적, 회고적
-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굳건한 지조
- 특징: ①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 대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며 '세한 고절'로 칭송하고 있음.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함. ◤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나무를 예찬함.
  ③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냄. ◤ '너 ᄲᅮᆫ인가 ᄒᆞ노라'에서 대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함.
- 구성: 초장 –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중장 – 눈에 굽히지 않는 대나무의 푸르름
  종장 – 대나무의 절개에 대한 찬양

1. (다)의 화자는 고려의 도읍이었던 곳을 돌아보며 고려 왕조를 회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이별 상황에서 현재 자신의 심경에 대해 노래할 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가)는 (나), (다), (라)와 달리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라 ○, ×〕
› (가)의 '이제(夷齊)'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물로, 화자의 절개와 지조가 더 굳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나), (다), (라)에서는 중국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가), (다), (라)와 달리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라 ○, ×〕
› (나)의 '날과 같아서'에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 (가), (다), (라)에서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는 (가), (나), (라)와 달리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라 ○, ×〕
› (다)의 '어즈버'는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사이다. (가), (나), (라)에서는 감탄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 (라)는 (나), (다)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라 ○, ×]

» (가)의 'ᄒᆞᄂᆞᆫ것가', '낫ᄃᆞ니', (라)의 '프를소냐'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2. (나)의 화자는 '촉불'에서 떨어지는 촛농을 눈물에 비유한 다음, 임(단종)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에 해당하는 시어는 '촉불'이다.

오답 분석

①, ② (가)의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중국의 산'과 '수양 대군'을 의미한다. '채미'는 '고사리를 캐어 먹는 것'과 '수양 대군의 녹봉'을 의미한다. 화자는 이러한 중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굳은 지조를 부각하고 있지만, '수양산'과 '채미'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은 아니다.

④ '산천'은 '인걸'과 대비하기 위해 활용된 시어로 감정 이입의 대상은 아니다.

⑤ '**ᄃᆡ**'는 절개와 절의를 상징하는 시어로 감정 이입의 대상은 아니다.

3. (가)에서 전통적으로 절의와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인 '이제(백의와 숙제)'를 비판함으로써 그들보다 더욱 굳은 화자의 절의를 부각하고 있다.

4. (다)의 작자가 멸망한 고려의 옛 도읍지를 둘러보며 그 감회를 읊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에서 고려가 융성했던 시절을 '태평연월'이라 하고 이를 '꿈'이라 표현한 것은 고려의 융성했던 시절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걸이 사라진 현실을 통해 무상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사라진 인걸을 되찾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도읍지'라는 장소를 제시하며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걸', 즉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을 통해 화자는 인생무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눈'은 시련을 상징하므로,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는 고난을 겪는 고려 충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ᄃᆡ**'는 고려의 충신을 비유하므로, '**ᄃᆡ**'를 '한겨울의 추위도 이겨 내는 고고한 절개'인 '세한 고절'에 빗댄 것은 고려의 충신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8쪽

02 ᄆᆡᆺ버들 갈히 것거 / 동지ㅅ둘 기나긴 밤을 / 이화에 월백ᄒᆞ고 / 이화우 흣ᄲᅮ릴 제

1. ④ **2.** ② **3.** ② **4.** ①

(가) 홍랑, 「ᄆᆡᆺ버들 갈히 것거」

시적 화자의 분신(分身)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ᄆᆡᆺ버들)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순정을 짙게 표현한 작품이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연정가, 애상적
- 주제: 임에 대한 사랑
- 특징: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드러냄. ◤ ᄆᆡᆺ버들, 새닙
  ②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님의손ᄃᆡ'와 '보내노라'가 도치됨.
- 구성: 초장 – ᄆᆡᆺ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냄.
  중장 – 주무시는 창가에 ᄆᆡᆺ버들을 심어 두고 봐 달라고 당부함.
  종장 – 임이 '나'를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호소함.

(나) 황진이, 「동지(冬至)ㅅ둘 기나긴 밤을」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짓달에,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외로운 여인의 마음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화자는 홀로 있는 겨울밤의 막막한 시간을 잘라 내어 보관해 두었다가 그리워하던 임과 함께 지내게 될 밤에 이어 붙여 그 시간을 길게 만들고 싶다는 기발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애상적, 감상적
-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특징: 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밤'(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시간을 벨 수 있는 사물로 변환시켜 표현함.
  ②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의태어를 사용함. ◤ 서리서리 너헛다가, 구뷔구뷔 펴리라
  ③ 독백체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 ◤ '펴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독백적 어조로 표현함.
- 구성: 초장 – 임과 함께 있지 못하는 긴 겨울밤을 잘라 내고 싶음.
  중장 – 긴 겨울밤의 시간을 이불 속에 넣어 놓고 싶음.
  종장 – 임이 오는 날 밤 그 시간을 펴서 오래 함께하고 싶음.

(다)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ᄒᆞ고」

봄밤에 두견새 소리를 듣고 느낀 애상감을 노래한 시조로, 고려의 시조 가운데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고려 시대
- 성격: 애상적, 감상적
- 주제: 봄밤의 애상적 정감
- 특징: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 시각적 이미지('이화', '월백', '은한' → 백색 이미지) + 청각적 이미지('자규'의 울음소리 → 고독, 한(恨)) ➡ 애상적 정서 표현
- 구성: 초장 – 밝은 달 아래 배꽃이 피어 있는 정경
  중장 –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봄밤의 분위기
  종장 – 봄밤의 애상과 우수에 잠겨 잠을 못 이루는 심정

(라) 계랑, 「이화우(梨花雨) 흣ᄲᅮ릴 제」

조선 중기의 이름난 기생인 계랑이 떠난 임(유희경)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조이다. 임과 이별한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상적 분위기를 통해 섬세한 감각으로 노래하였다.

- 갈래: 평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애상적, 감상적
•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 특징: ① 계절적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통해 이별의 정서를 드러냄. ◤ 이화우, 추풍낙엽: 각각 봄과 가을의 이미지, '봄 → 가을': 하강 이미지
② 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간절하게 나타냄. ◤ 천 리: 임과의 거리감 → 공간적, 정서적 거리
• 구성: 초장 – 봄에 임과 이별함.
중장 – 가을에 임을 그리워함.
종장 – 임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1. (가)의 화자는 임에게 산버들을 보내 새잎이 나면 자신인 것처럼 여겨 달라는 소망과 함께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임이 오는 날 이어 붙이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의 화자는 봄에 이별했던 임을 떠올리며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 (라)는 부재한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 (다)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다 ○, ×〕
› (다)에서 '줌 못 드러 ᄒᆞ노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나 (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나), (라)는 임과 이별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 ○, × | 라 ○, ×〕
› (라)에서 '이화우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ᄒᆞᆫ 님'은 임과 이별을 했던 당시의 상황을 드러낸 부분이다. (나)에서는 화자와 임이 이별한 당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다)는 임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에서 '자시ᄂᆞᆫ 창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는 화자가 임에게 하고픈 당부의 말을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나)와 (다)에서는 화자가 임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⑤ (나), (다), (라)는 이별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나), (라)에는 모두 그리움, 즉 이별한 대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는 봄밤의 애상적 정감을 드러낸 작품으로,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2. '밤비'는 화자가 임에게 보낸 묏버들에서 새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화자는 '묏버들'을 아무렇게나 꺾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히**(골라)' 꺾어 보내고 있다.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스런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새닙'은 바로 뒤에 언급되듯이 '날인가도 여기'도록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닙'에는 화자 자신의 임에 대한 사랑을, 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의 '춘심'은 (다)의 모든 이미지와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 즉, 나뭇가지에서 느낄 수 있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하나의 나뭇가지에 어린 봄의 의미인 '일지춘심(一枝春心)'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⑤ (다)의 '다정'은 배꽃이 피고 소쩍새가 우는 봄밤에 느끼는 화자의 애상감, 고독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정'은 봄밤에 느끼는 화자의 고독과 애상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은 임과 함께하는 짧은 봄밤을 연장해 보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구뷔구뷔'는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지만,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데에 활용된 것이 아니라 임을 기다리는 마음의 절실함을 드러내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밤'이라는 시간을 자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묘사하고 있다.
③ 밝은 달빛('월백')을 받는 '이화'와 '은한'이 어울려서 한밤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④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의 심리가 중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천 리'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의 현재의 처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

4. 〈보기〉의 ㉮는 친구에게 글쓴이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묏버들'을 임에게 보내 자신의 지순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화자의 마음을 담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묏버들'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창**밧**'은 임이 있는 공간과 관련된 시어이다.
③ '동지ㅅ**돌**'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로,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④ '니불'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관련된 시어로, 홀로 있는 긴 겨울밤의 시간을 넣어 놓고 싶은 공간을 나타낸다.
⑤ '자규'는 봄밤의 애상감과 관련된 시어로, 울음소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봄밤의 애상감과 한의 정서를 환기하는 자연물이다.

03 도산십이곡 / 병산육곡

1. ① **2.** ② **3.** ③ **4.** ②

(가)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 작품은 작가가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자연에 살고 싶은 소망과 학문 수양에 대한 끝없는 의지를 드러낸 연시조로, 언지(전6곡)와 언학(후6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지(言志, 뜻을 말함.)'가 삶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노래한 것이라면 '언학(言學, 학문을 말함.)'은 작가의 인생관 중 학문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 노래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당시 사대부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생활 태도로, 이 작품에는 사대부들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 갈래: 연시조(전 12수)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교훈적, 회고적
- 주제: 자연 친화적 삶의 추구와 학문 수양에 대한 끝없는 의지
- 특징: ① 유성음의 사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오명가명: 유성음('ㅇ')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
  ② 연쇄적 표현으로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줌. ◤ 〈제10곡: 언학 4〉에 연쇄법이 사용됨(중장 → 종장).
  ③ 중국 문학을 차용한 곳이 많고, 생경한 한자어가 많이 차용됨. ◤ 어약연비: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낢(『시경』에서 차용).
- 구성: 제5곡(언지 5) – 자연을 멀리하는 현실 비판
  제6곡(언지 6) – 자연에 사는 즐거움
  제7곡(언학 1) –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삶의 즐거움
  제10곡(언학 4) – 벼슬을 그만두고 학문에 정진함.

(나) 권구, 「병산육곡(屛山六曲)」

작가의 고향 마을인 안동의 병산리에서 제목을 따온 것으로,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6수)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예찬적, 세태 비판적
- 주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기쁨
- 특징: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두견: 화자와 동일시 → 의지할 곳 없음(감정 이입).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강조함. ◤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으지하리(꽃잎 지게 하는 매서운 바람 부니 어느 가지에 의지하랴?): 설의적 표현으로 대상의 처지를 드러냄.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 줌.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혼탁한 정치 현실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없는 화자 자신(또는 극심한 정쟁 속에서 길을 잃은 임금을 상징)
  ④ 혼탁하고 암울한 현실을 까마귀, 봉황 등 자연물로 비유하여 드러냄.
  ⑤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설워 하노라, 무릉인가 하노라
- 구성: 제4곡 – 혼탁한 현실에 대한 탄식
  제5곡 – 혼탁한 현실에 대한 염려
  제6곡 – 어촌의 삶에 대한 자부심

1. (가)에서는 '유수(有水) ㅣ로다', '월만대(月滿臺)라', '무궁(無窮)하얘라' 등의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에 대한 감탄,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설워 하노라',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등의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어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②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서는 대조적 어휘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제5곡에서 '가막이'와 '편편 고봉'이라는 대조적 어휘가 사용되었지만,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의 제10곡에서는 연쇄적 표현을 써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연쇄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시선의 이동이나 이를 통한 화자의 태도 변화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에서는 제6곡의 '어느 끝이 있으리', 제7곡의 '닐러 므슴 홀고'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나,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삶의 즐거움을 강조한 것이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제4곡의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으지하리'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정치적으로 혼탁한 현실에 처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은 현인이나 성자가 타는 흰 말인데 '어진 사람'을 비유한다. ㉠은 (가)의 화자와 달리 '멀리 ᄆᆞ음을 두'고 있는 존재로,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그러나 (나)에서 '백조'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낙화 광풍'이 부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화자는 ㉠이 자연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나 ㉠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나)의 화자는 ㉡에게 한스러워 말라고 하며 자신의 한스러운 감정을 ㉡에 이입하고 있다.

③ ㉠은 '멀리 ᄆᆞ음 두는고'에서 자연을 멀리하며 다른 곳에 뜻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가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나)의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지 화자가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은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에게 감정 이입을 하고 있으므로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화자는 ㉠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을 계기로 삶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 역시 ㉡을 통해 한과 서러움을 드러낼 뿐 이를 계기로 삶을 성찰하고 있지 않다.

3. 제5곡의 '가막이'는 서로를 헐뜯는 벼슬아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막이'를 화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각성할 수 있게 도와준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제4곡의 '혼자 우난 저 두견'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 준다.
② 제4곡의 '낙화 광풍'은 정치적으로 혼탁한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로 하여금 의지할 곳을 사라지게 만드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④ 제5곡의 '한연에 날은 죠차 저물거날'은 들판 숲속에 차가운 안개가 꼈는데 어둠까지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6곡의 '수삼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어촌을 이상향이라고 말한 것으로, 어촌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화자는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 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한도가 없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물아일체의 경지를 언급한 '사시 가흥이 사ᄅᆞᆷ과 ᄒᆞᆫ가지'라는 말을 통해 후학들이 자연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제5곡에서 화자는 '갈매기는 오명가명' 하고 있는 '유수'와 같은 자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교교백구'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화자는 자연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녀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7곡에서는 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삶의 즐거움을 제시하고 있다. '만권생애로 악사'가 '무궁'하다는 것은 독서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즐거움을 나타낸다.
④ 제10곡에서는 학문에 정진하지 못했던 때에 대해 '녀던 길흘 몃 ᄒᆡ롤 ᄇᆞ려 두'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태도로 학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
⑤ 제10곡의 '년 ᄃᆡ ᄆᆞᄋᆞᆷ 마로리'는 벼슬을 추구하는 것처럼 학문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다짐은 후학들이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52쪽

04 만흥

1. ② 2. ④ 3. ④ 4. ③

윤선도, 「만흥(漫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속세의 번뇌를 떨쳐 버리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흥겨운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가는 자연과 속세를 대립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자연 속 삶이 월등히 낫다는 가치관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갈래: 연시조(전 6수)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자연 친화적
- 주제: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 특징: ①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제2수: 이시랴 / 제3수: 이러ᄒᆞ랴 / 제4수: 이만ᄒᆞ랴 / 제6수: 누얻ᄂᆞ냐'에서 설의적 표현 사용
  ②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시켜 주제를 부각함. ◤ 자연(산슈 간 바회, 보리밥 풋ᄂᆞᄆᆞᆯ, 바횟 긋 믉ᄀᆞ 먼 뫼, 강산)과 세속적(그냐믄 녀나믄, 삼공, 만승, 인간 만ᄉᆞ, ᄃᆞ토리)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비적으로 사용함.
  ③ 전체적으로 한문투의 표현보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음.
- 구성: 제1수 –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삶
  제2수 –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는 삶
  제3수 – 자연과 동화되어 물아일체의 경지를 즐기는 삶
  제4수 – 속세의 공명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
  제5수 – 하늘이 맡긴 자연에서의 삶
  제6수 –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1. 〈제2수〉의 '부ᄅᆞᆯ 줄이 이시랴', 〈제3수〉의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러ᄒᆞ랴', 〈제4수〉의 '만승(萬乘)이 이만ᄒᆞ랴'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며 만족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6수〉 '분(分)으로 누얻ᄂᆞ냐'에서도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 ×]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③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 ×]
› 화자의 내면 상태를 나타내는 명암의 대비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말을 건내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 독백적인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작품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 ×]
›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의인화는 찾아볼 수 없다.

2. '소부 허유'는 속세에 나서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누고셔'는 자연에서의 삶이 '삼공'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소부 허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그 모론'은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

을 의미한다. '산슈 간 바회 아래'를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② '바횟 긋 믉ᄀᆞ'에서 '슬ᄒᆞ지 노니'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햐암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몯내 됴하ᄒᆞ'는 것의 대상은 '그리던 님'이 아니라 '먼 뫼'이다.
⑤ 화자는 '하ᄂᆞᆯ'이 자신의 천성을 알아서 '인간 만ᄉᆞ'를 'ᄒᆞᆫ 일'도 하지 않게 해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은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는 일과 대조되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오답 분석

⑤ ㉠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생활하는 화자에게 근심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은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자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일이 아니다.

4. 화자가 '먼 뫼'를 바라보고 있는 곳은 자연 속 삶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화자는 '먼 뫼'를 '그리던 님'보다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며, 말하거나 웃지 않아도 '먼 뫼'와 서로 통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자연 속에 '뛰집'을 지어 생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도 화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뛰집'에서 사는 것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며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보리밥 픗ᄂᆞᄆᆞᆯ'은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음식으로, 자연 속에서 이러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통해 화자의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자연에서 생활하는 것이 삼정승을 하는 것보다도, 나아가 황제의 지위를 갖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화자는 '강산'이 다툴 이가 없는 곳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다툴 이가 없는 것은 속세와 대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화자는 이러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임금의 은혜임을 상기하고 그 은혜가 매우 큰 것임을 밝히고 있다.

54쪽

05 비가

1. ④ 2. ③ 3. ① 4. ④

이정환, 「비가(悲歌)」

청나라에 잡혀 간 두 왕자를 걱정하는 마음과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읊고 있는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10수)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우국적, 비판적
- 주제: 국치에 대한 분노와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의문형 문장과 대화체, 의인화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제1수 '묻노라 이내 꿈아': 대화체 활용, 꿈을 의인화, 도치법 사용 / '어느덧 다녀온고': '어느새 다녀왔느냐'의 의문형 문장 → 두 왕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냄.
  ②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시켜 국치(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함. ◤ 제8수에서 아무 근심없이 자라난 풀과 근심 있는 화자의 처지를 대비시켜 나타냄. → 시름많은 인간사를 자연물에 대비시켜 국치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냄.
  ③ 감정의 직접적 표출 ◤ 제6수 '슬프다'
- 구성: 제1수 –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세자를 그리워함.
  제2수 – 두 왕자에 대한 걱정과 국치로 인한 슬픔
  제6수 –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아 줄 충신이 없는 것에 대한 통탄
  제8수 – 국치로 인한 비분과 시름
  제9수 –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괴감
  제10수 – 현실에 대한 비판과 술로 달래는 시름

1. 〈제8수〉에서는 풀은 '아는 일(알을 일)'이 없으나 '우리'는 '아는 일(알을 일)'이 있어 못 이길 시름에 싸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구렁에 났는 풀'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못 이길 정도의 시름에 싸여 있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 ×]
› '신고(辛苦)ᄒᆞᆫ 화친(和親)'과 같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신고(辛苦)ᄒᆞᆫ 화친(和親)'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화친을 문제 삼기 위함이다.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 | ×]
› 생동감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 | ×]
›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을 통해 정서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 ×]
›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참승ᄒᆞᆯ 이 업세라'는 임금을 가까이서 지켜줄 수 있는 충신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탄식을 나타낸 것이다. 병자호란의 와중에 희생된 충신을 애도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꿈에서 만나 친히 뵌 듯하다며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왕자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화자는 조정을 바라보며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라고 탄식하고 있다. 무신이 많음에도 국치를 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치를 당하게 만든 조정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화자는 시름이 너무 커서 '시름겨워 ᄒᆞ노라'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여 준다.
⑤ 화자는 자신을 '조그만 이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통한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낀 화자의 자괴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풍셜 섞어 친 날'은 병자호란 이후의 참담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므로 ⓐ 풍셜(눈바람)은 화자가 당면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구렁에 났는 풀'은 시름없이 자라는 풀로, 오히려 근심 있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에 해당하므로, 화자의 근심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소재라 할 수 없다. 그리고 ⓒ '검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으로, 화자는 이러한 '검불'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있다.

4. [A]에서 '눈물'은 '소해용안'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흘린 것이다. 이 문제는 〈제10수〉에서 화자가 '잡말', '칠실의 비가'로 슬퍼한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술로나마 자신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북래 사자'로부터 '소해용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B]에서 '시름'을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탁주 한 잔'이다.
② [A]에서 화자는 '소해용안'과 현실에서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 '잡말 마라스라'라는 것은 시름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③ [A]에서 화자는 '소해용안'이 '얼마나 추우신고'라는 물음을 제시하여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화자가 '소해용안'이 얼마나 추운지를 알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B]에서 '어린것'은 문제 사태에 대해 잡말을 하는 존재로, 현실의 슬픔을 말로써 해결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소해용안'이 얼마나 추운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⑤ [A]에서 화자는 자신을 '고신'이라고 칭하면서 못 죽고 있음을 한탄스러워하고 있다. [B]에서 '칠실의 비가'로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비가를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당면한 현실로 인한 슬픔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을 노래하는 것은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06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 님이 오마 ᄒᆞ거ᄂᆞᆯ / 내게는 원수 | 가 업셔

1. ① **2.** ② **3.** ⑤ **4.** ①

(가) 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 돌도 업슨」

임을 여읜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기발한 발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까투리의 안, 도사공의 안, 내 안이 삼안이라 하여 「삼안가」로 일컫기도 하는 작품이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연정가, 과장적
- 주제: 임을 여읜 슬픔
- 특징: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생생하게 드러냄. ◤중장과 종장
- 구성: 초장 – 숨을 곳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중장 –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에 처한 도사공의 마음
  종장 – 임을 여의어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슬픈 마음

(나) 작자 미상, 「님이 오마 ᄒᆞ거ᄂᆞᆯ」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행동'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연정가, 해학적, 과장적
- 주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
- 특징: ①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함. ◤ 겻희님희 님희곰희 쳔방지방 지방쳔방, 워렁충창
  ② 자연물을 임으로 착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냄.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함.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소겨다', 'ᄒᆞ괘라'라는 표현을 통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겸연쩍음과 실망감을 부각함.
- 구성: 초장 – 임이 온다는 소식에 급해진 마음
  중장 –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함.
  종장 –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겸연쩍음.

(다) 작자 미상, 「내게는 원수(怨讐) | 가 업셔」

화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와 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해학미를 엿볼 수 있는 한편, 임에 대한 원망과 간절한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해학적, 연정가
-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
- 특징: ①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표현함.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 ◤ 홰홰쳐, 캉캉 →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소리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중장의 '~님을~가게 ᄒᆞ고, ~님을~가게 ᄒᆞ니'

• 구성: 초장 – 내게 원수인 개와 닭
중장 – 임을 깨워 다시 돌아가게 하는 닭과 개에 대한 원망
종장 – 임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리워함.

1. (가)는 임을 여읜 슬픔을, (나)는 부재한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 또한 부재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현재 임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적 모습이 나타난다.
〔가 ○, ✕ | 나 ○, ✕ | 다 ○, ✕〕
› (가)~(다)는 모두 임의 부재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은 (다)에만 나타난다.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가 ○, ✕ | 나 ○, ✕ | 다 ○, ✕〕
› (다)에서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개와 닭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와 (나)에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에서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삼대 줄기를 임으로 착각할 만큼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드러내며, (다)에서는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개와 닭을 없애려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⑤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가 ○, ✕ | 나 ○, ✕ | 다 ○, ✕〕
› (나)와 (다)에서 임과의 과거 상황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있으나, 과거의 기대나 그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해 표현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가)의 화자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까투리, 도사공의 마음과 비교하며 이별의 상황에 놓인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황은 화자와 대조되는 상황이 아니며,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는 부분도 없다.

오답 분석

① (가)의 '노도 일코 닷도~수적 만난'에서 바다에서 도사공이 겪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열거법과 점층법, 과장법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솔드리도 날 소겨다'(살뜰히도 날 속였다)에서 자신의 착각을 주추리 삼대가 속인 것으로 표현한 주객전도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데서 온 겸연쩍음과 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의태어와 의성어('겻븨님븨 님븨곰븨 쳔방지방 지방쳔방', '워렁충창')를 써서 화자의 행동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임이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다)의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것을 얄미운 개와 닭의 탓으로 돌리며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화자는 임의 부재로 속을 태우고는 있지만, 개와 닭을 없애고자 하는 행위는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낼 뿐 삶에 대한 회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은 화자의 마음과 비교하여 이별을 슬픔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대상이다.

② 의태어를 써서 임에 대한 반가움으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워렁충창'과 같이 의성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허둥거리는 화자의 과장된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임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낮'이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놀림감이 되었을 것인데 '밤'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와 닭의 탓으로 돌려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가)는 임을 여의어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와 수적을 만난 도사공이라는 위기에 처한 극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임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다가 허둥대는 모습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위기에 처한 극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② (가)와 (다)는 평시조의 정제된 틀에서 벗어나 중장을 길게 늘여 화자의 진솔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다.

③ (나)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들뜬 행동과 임이 보고 싶어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모습을, (다)는 닭과 개가 임을 쫓아내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해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④ (나)의 소재인 버선과 신, (다)의 소재인 개와 닭은 당대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들로, (나), (다)는 이와 같은 일상적 소재들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평시조와는 달리 중장이 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제된 형식을 지키기보다 파격을 선택하더라도 내용 전달을 중시했던 평민들의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58쪽

01 붉가버슨 아해 | 들리 /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 일신이 ᄉᆞ쟈 ᄒᆞ엿더니

1. ① **2.** ⑤ **3.** ③

(가) 이정신, 「붉가버슨 아해(兒孩) | 들리」
개천에서 잠자리를 잡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풍자적, 해학적

• 주제: 서로 속이는 험난한 세태 풍자
• 특징: ① 발가벗은 아이들이 잠자리를 거짓으로 꾀어내는 상황을 세상사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② 풍자적 은유와 중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음. ◤ '붉가버슨 아해ㅣ들' = 잠자리를 잡으려는 아이들(남을 모해하는 자) → '붉가숭이' = 잠자리(남에게 모해 당하는 자): 거짓으로 잠자리를 속여서 해치려 함. 세상일도 모두 이와 같음. 약육강식의 세태 풍자
• 구성: 초장 – 개천을 왕래하는 발가벗은 아이들
중장 – 발가숭이(고추잠자리)를 달콤한 말로 속임.
종장 – 약육강식의 험난한 세태

(나) 작자 미상,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게젓 장수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현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젓 장수의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해학적, 풍자적
• 주제: 현학적인 태도(세태) 풍자
• 특징: ① 게젓 장수와 손님(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게를 현학적으로 묘사함. ◤ 중장에서 한자어를 사용하여 게의 모습을 묘사함.
③ 감각적인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함. ◤ ᄋᆞᄉᆞᆨ스슥
• 구성: 초장 – 상인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물음.
중장 – 상인이 게와 게장의 맛에 대해 장황하게 묘사함.
종장 – 상인의 현학적 태도를 비판함.

(다) 작자 미상, 「일신(一身)이 ᄉᆞ쟈 ᄒᆞ엿더니」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들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서민들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 갈래: 사설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풍자적, 해학적, 우의적
• 주제: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 비판
• 특징: ① '물것'의 종류를 장황하게 열거함으로써 부정적인 세태를 우의적으로 풍자함. ◤ 물ㄱ것 – 빈아 삿기 ~ 샢록이
②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함.
• 구성: 초장 – 물것으로 인한 세상살이의 괴로움
중장 – 물것들의 나열
종장 – 물것 가운데 쉬파리가 가장 지독함.

1. (가)는 속고 속이는 세태를, (나)는 현학적 태도를 가진 이들을, (다)는 세상살이를 어렵게 하는 탐관오리를 벌레에 비유해 비판하고 있으므로, 세 작품 모두 현실의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②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가 ○,✕ | 나 ○,✕ | 다 ○,✕〕
› (가), (나), (다)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가 ○,✕ | 나 ○,✕ | 다 ○,✕〕
› (다)에서 부정적 현실로 인한 고통이 드러나고는 있으나 이를 잊기 위해 자연에 의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와 (나)에는 부정적인 현실이 드러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이나 자연에 의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일상적 소재를 계기로 삼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가 ○,✕ | 나 ○,✕ | 다 ○,✕〕
› (가)는 고추잠자리, (나)는 게젓, (다)는 여러 해충이라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재를 계기로 삼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비교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 ○,✕ | 나 ○,✕ | 다 ○,✕〕
› (가), (나), (다)에는 서민들의 생활상이 드러나지만,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비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오뉴월 복다림'(ㅁ)은 다른 해충들보다 '쉬ᄑᆞ리'가 미치는 해악이 가장 크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으로, 다른 계절보다 여름이 더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붉가숭'(ㄱ)은 '붉가버슨 아해'들이 잡으려는 고추잠자리로 모해를 당하는 자를 뜻하고, 이어지는 '붉가숭이로다'에서 '붉가숭이'는 '붉가버슨 아해'들로 ㄱ을 속여서 잡으려고 하는 존재이다.

② '딕들'(ㄴ)은 상거래 중 '쟝스'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게젓 장수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야냥거리고 있다. 따라서 ㄴ은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고자 한 화자의 의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빈아 삿기'(ㄹ)는 '빈대 새끼'를 뜻하는 말로, 화자를 괴롭히는 여러 해충인 '물ㄱ것'에 해당된다. (다)에서 '등에', '갈ᄯᅳ귀' 등도 '물ㄱ것'이다. 화자는 물것이 많아서 살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가 많은 현실의 고통을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중장에서 물것의 종류를 나열하며 세상살이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3. '져 장스야~웨ᄂᆞᆫ다 사쟈'는 '쟝스'에게 건네는 어떤 사람의 말로, 장수가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부분에 장수에 대한 화자의 동정심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감언이설로 잠자리를 유인하는 '붉가버슨 아해'들의 행동으로 보아, 강자가 거짓으로 약자를 속여서 해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세상일도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속이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서로 속고 속이는 약육강식의 각박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앞에서 불필요하게 한자 어구를 나열하며 장황하게 설명한 게젓 장수의 현학적 언행을 비판하는 구절로, 그 이면에는 한문만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지적 소양을 뽐내는 당시 양반 계층의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물ㄱ것'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대상을 비유하는데, '물ㄱ것 계워 못 ᄉᆞᆯ니로다'에서는 사람의 살을 무는 곤충이 괴롭혀 살기가 어렵다고 함으로써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가 많아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V 가사

62쪽

01 상춘곡

1. ③ 2. ② 3. ② 4. ⑤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조선 성종 때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玩賞)하는 풍류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갈래: 가사(은일 가사)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풍류적, 낭만적
- 주제: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수간모옥 → 정자 → 시냇ᄀᆞ → 봉두
  ②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주객전도식 표현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함. ◤ 공명도 날 ᄭᅴ우고 부귀도 날 ᄭᅴ우니 → 주객전도식 표현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ᄅᆞᆯ 못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로다 → 새: 감정 이입의 대상
  ④ 돈호법을 사용하여 청자를 설정함. ◤ 이바 니웃드라
- 구성: 서사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본사 1 – 봄의 아름다운 경치
  본사 2 – 봄의 흥취
  본사 3 – 산수 구경의 권유
  본사 4 – 풍류를 즐김.
  본사 5 –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
  결사 – 안빈낙도의 삶

1. 청자로 설정한 '홍진에 뭇친 분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물으며, 자부심을 드러내는 내용은 있으나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며 대상에 대한 감회를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
› '천지간 남자 몸이 ~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 '물아일체어니 흥이 ᄋᆡ 다ᄅᆞᆯ소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써서 자연에 묻혀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 '새'를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일정한 음보율과 시구의 대응을 통해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 ×]
› 이 작품은 각 행이 4음보의 일정한 율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화 행화ᄂᆞᆫ ~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등에서 시구의 대응을 통해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 ×]
› '~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셔라', '소ᄅᆡ마다 교태(嬌態)로다', '떠오ᄂᆞ니 도화(桃花) ㅣ로다'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과 흥겨움을 표출하고 있다.

2. [A]에서는 화자가 바라본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고 있다. [B]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A]와 [B]는 모두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다루고 있다. [B]에서 '도화'를 보며 무릉도원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이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풍경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③ [A]에서 거리에 따른 시선의 이동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으며, [B]에서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A]에서 '겨을'에서 '새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지만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에서 '소동(小童) 아ᄒᆡ'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 변화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자연의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B]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3. ㉯에서 화자는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며 산중 생활이 적적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러한 한가로운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비애감을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에 머물던 화자는 봄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흥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고 정자에도 앉아 본다.

③ ㉯에서 화자는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가자며 권유하며 구체적인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

④ ㉰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화자는 시냇물에 떠오는 도화를 보고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만족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화자는 겨울의 '검은 들'이 '봄빗도 유여'하게 변한 모습을 보며 직유법과 영탄법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4. '단표누항(簞瓢陋巷)'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에 묻힌 처사로서의 이념적 명분을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분석

① '홍진(紅塵)'은 붉은 먼지를 뜻하며,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세는 사대부의 현실적 지향인 출사의 공간에 해당한다.

② '풍월주인(風月主人)'은 자연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자연에 묻힌 처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화자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녯사ᄅᆞᆷ'의 풍류에 비견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락(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와 '이만ᄒᆞᆫᄃᆞᆯ 엇지ᄒᆞ리'는 모두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화자의 현재 처사로서의 이념적 명분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비록 공명과 부귀와는 거리가 먼 누추한 삶을 살더라도, 허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활을 즐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는 현재 화자의 처사적 삶을 흔드는 '흣튼 혜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5쪽

02 사미인곡

1. ② 2. ③ 3. ④ 4. ⑤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작가가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목소리에 빗대어 계절에 따라 노래한 대표적 가사 작품이다.

- 갈래: 가사(연군 가사, 유배 가사)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서정적, 연정적, 충신연주지사
- 주제: 임을 향한 일편단심, 연군지정
- 특징: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호소력을 높임. ◤ 연지분, 나위, 홍샹 등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동풍이 ~ 혜텨 내니, ᄉᆞᆺ 디고 ~ ᄉᆞᆯ렷ᄂᆞᆫ디, ᄒᆞᄅᆞ밤 ~ 우러 녈 제, 건곤(乾坤)이 ~ ᄒᆞᆫ 빗친 제 등
  ③ 다양한 비유와 상징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상징: 산, 구롬 – 간신 / ᄃᆞᆯ, 북극의 별 – 임금
  ④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함.
- 전체 구성

서사	→	본사	→	결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영원한 사랑 다짐
천상에서 하계(인간 세상)로 내려옴.		사계절 변화에 따라 특정 대상물에 화자의 마음을 담아 표현함.		죽어서도 끝까지 임을 사모하겠음.

- 구성: 서사 – 임과의 인연과 이별
  본사 1(춘사) –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매화)
  본사 2(하사) –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옷)
  본사 3(추사) – 임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갈망함(청광).
  본사 4(동사) – 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양춘)
  결사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함.

1. 서사 부분에서 과거 젊은 시절에 임의 사랑을 받았던 상황과 현재 늙어서 임의 곁을 떠난 상황을 대조하여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의문형 어미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 ⊗]
› '일이런가', '그리ᄂᆞᆫ고', 'ᄒᆞᆯ고' 등과 같이 의문형 어미가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주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과 어울리고 있다. 화자의 의지를 부각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상의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
› 이 글에는 가상의 대화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 ⊗]
› '첩첩(疊疊)'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행동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계절의 변화 과정과 대응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 | ⊗]
› 본사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을 강조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 'ᄆᆡ화(梅花)'는 임에게 충성심을 알리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대상이, 울면서 날아가는 ㉡ '기러기'는 화자의 슬픈 정서가 이입되어 있는 대상이다. 두 소재 모두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은 임에게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화자의 소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은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고독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3. 〈보기〉의 종장 '여기소서'에는 임이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 는 마음이 담겨 있다. [A]의 '올므리라'는 그 뒤에 있는 '님이야 날인 줄 모ᄅᆞ셔도'를 고려할 때 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분석

① 〈보기〉의 화자는 재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뭣버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보낸다. [A]의 화자는 현실에서 임과의 재회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라리 죽어서 '범나븨'가 되겠다고 하고 있다.

② 〈보기〉의 '묏버들'과 [A]의 '범나븨'는 모두 사랑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새잎'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에서 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의 병은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를 고려할 때 임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밤비'는 '묏버들'에서 '새잎'이 나도록 하여 임이 자신을 생각게 하는 기능을 한다. [A]의 '편작(扁鵲)'은 명의를 의미하는데, 어떤 명의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하였다.

4. '하계'에 속하는 '쇼샹 남반(瀟湘南畔)'에 머물고 있는 화자는 겨울철 추위를 느끼며, '옥누고쳐(玉樓高處)'에 있는 임의 건강을 걱정한다. 그래서 임에게 봄볕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옥누고쳐(玉樓高處)'는 임의 건강을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으로 봐야 한다.

오답 분석

① 비어 있는 '슈막(繡幕)'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공간이자, 임의 부재(不在)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② '산(山)'과 '구롬'은 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③ '위루(危樓)'는 화자가 '광한전'의 임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오르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임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긴다.
④ '북극(北極)의 별'은 '동산(東山)의 ᄃᆞᆯ'과 함께 '광한전'의 임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하계'에 있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에 화자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다.

03 만분가

1. ① 2. ⑤ 3. ⑤ 4. ②

조위, 「만분가(萬憤歌)」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인해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유배 가사의 효시이다.

- 갈래: 가사(유배 가사, 연군 가사)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한탄적, 비분적, 원망적
- 주제: 유배 생활의 억울함과 연군지정
- 특징: ① 자신을 하계로 내려온 신선에, 임금을 옥황상제에 빗대어 표현함. ◤ 천상 백옥경, 자청전, 삼청동리, 자미궁, 향안전, 건덕궁
  ② 자연물에 의탁하여 정서를 드러냄. ◤ 두견, 한널 구름, 외기럭이, 새, 만장송, 금강산 학
  ③ 화자를 임을 잃은 여성으로 설정하여 호소력을 높임.
- 구성: 서사 – 임금에게 가슴에 쌓인 말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
  본사 1 –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유배에 처하게 됨.
  본사 2 – 무고하게 유배를 온 억울함
  본사 3 – 유배 생활에 대한 운명적 태도
  결사 1 – 임금에 대한 변치 않은 충성심과 그리움
  결사 2 – 자신의 뜻을 알아줄 사람을 간절히 원함.

1. 특정 대상 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폭로하거나 비웃는 풍자의 기법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② 대구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 ×]
›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요 /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玉皇上帝) 처분(處分)이라'에서 대구의 표현을 통해 유배 생활하는 운명에 대한 체념과 순종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
› '이 내 가슴 / 산이 되고 돌이 되여 어듸 어듸 사혀시며 / 비 되고 믈이 되여 어듸 어듸 우러 녤고'에서 '어듸 어듸'의 반복을 통해 억울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 ×]
› 화자는 '두견', '한널 구름', '외기럭이', '새'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억울하고 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을 구체적인 수치를 써서 나타내고 있다. [○ | ×]
› 화자는 하늘의 궁궐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인데,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구만 리'라는 표현을 써서 화자와 임의 사이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에서는 노나라와 진나라의 예를 들어 자신은 정치적 사건(무오사화)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는 '한이 ᄲᅳᆯ희(뿌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라고 하여 화자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화자의 억울함과 분한 마음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 ㉤ 모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어조의 변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이 노래를 지은 동기를 밝히는 부분으로, 가슴에 쌓인 말을 호소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무단ᄒᆞᆫ ~ 나리나니(끝이 없는 회오리바람이 관리의 바다 중에 내리나니)'라는 표현으로 보아 화자가 겪은 정치적 사건(무오사화)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ᄀᆞ을 ᄃᆞᆯ ᄇᆞᆯ근 밤'과 '월중'은 모두 이별한 임과 재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배경에 해당한다. 화자는 임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실제로 임과 재회한 상황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공산 촉루 ᄀᆞ치 님자 업시 구닐'던 화자가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 이천봉의 ᄆᆞ음ᄀᆞᆺ 소사' 오르는 모습은 상승의 이미지

를 구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만장송이 되여 이셔 / ᄇᆞ람비 ᄲᅢᆫ린 소ᄅᆡ 님의 귀예 들리기나'를 통해 임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외나모 매화 되여셔 / 설중의 혼자 픠여 침변의 이위ᄂᆞᆫ듯'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만장송'과 '매화'를 통해 임을 향한 화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ᄇᆞ람비 ᄲᅢᆫ린 소ᄅᆡ 님의 귀예 들리기나', 'ᄀᆞ을 ᄃᆞᆯ 불근 밤의 두어 소ᄅᆡ 슬피 우러셔 / 님의 귀의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다'를 볼 때,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는 임에게 전하고픈 자신의 슬픈 심정을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한이 ᄲᅳᆯ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한(恨)'과 '눈물'이 뿌리와 가지가 되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한'의 정서를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이 글의 작가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확고한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적 성찰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는 [2]의 '약수(弱水) ᄀᆞ리진ᄃᆡ 구름 ~ 님 그려 이러컨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는 [2]의 '동풍(東風)이 유정(有情)ᄒᆞ여 ~ 죽림(竹林)의나 부치고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2]의 '한(恨)이 ᄲᅳᆯ희 되고 눈물로 가디 삼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2]의 '빈 낙대 빗기 들고 ~ 건덕궁(乾德宮)의 가고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쪽

04 누항사

1. ② **2.** ④ **3.** ④ **4.** ④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작가가 경기도 용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이덕형이 찾아와 근황을 묻자 그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임진왜란 후에 궁핍해진 현실과 사대부로서의 이상 추구 사이의 갈등을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가사(은일 가사)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 주제: 누항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빈이무원과 안빈낙도를 추구함.
- 특징: ① 열거, 과장, 대구, 설의법 등의 표현법이 사용됨. ◤ 옴길 넌가(옮기겠는가), 담겨시랴(담겨 있으랴) → 설의적 표현
  ② 대화체를 사용하여 실제 생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어화 긔 뉘신고(소 주인의 말), 염치 업산 ᄂᆡ옵노라(화자의 말) 등
  ③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냄. ◤ 녹죽(푸른 대나무), 명월청풍(밝은 달과 맑은 바람)
  ③ 농촌의 일상적 어휘와 어려운 한자가 혼재되어 사용됨.
- 구성: 서사 – 누항에서의 안빈일념과 생활의 어려움
  본사 3 –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감.
  본사 4 –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함.
  본사 5 –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춘경(봄갈이)을 포기함.
  결사 1 – 자연에 은둔해 여생을 즐기고자 함.
  결사 2 – 빈이무원, 안분지족과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1. '장부(丈夫) ᄠᅳᆺ을 옴길넌가', '병(甁)의라 담겨시랴', '잠이 와사 누어시랴' 등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궁핍한 상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 ×]
› 소 한 번 빌려주겠다는 이웃의 말을 떠올리는 것을 과거 회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감정의 절제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 ×]
› 이 글에는 '이ᄂᆡ 한(恨)', '세정(世情) 모ᄅᆞᆫ 한숨' 등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으며, 상황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 | ×]
› '허위허위', '설피설피' 등 의태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으나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다.

⑤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
›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의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약속을 저버린 이웃의 태도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비판 의식도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2. 이웃집 사람(소 주인)은 소를 빌리러 온 화자에게 '공ᄒᆞ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ᄒᆞ다마ᄂᆞᆫ'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공짜로도 빌려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자를 염치 없다며 나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염치(廉恥) 업산 ᄂᆡ옵노라'는 화자가 한 말이다.

① 가뭄이 심하여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화자는 논에 물을 대고 이웃집에서 소를 빌려 농사를 지으려 한다. 여기에서 가뭄으로 인해 논을 가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쇼 ᄒᆞᆫ 젹 듀마 ᄒᆞ고 엄섬이 ᄒᆞᄂᆞᆫ 말삼'을 통해 이웃집 사람이 소를 빌려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그 말을 믿고 소를 빌리러 간 것이다.

③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 큰 기ᄎᆞᆷ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ᄒᆞ온 후(後)에'를 통해 화자가 양반의 체면 때문에 차마 자기가 왔다는 사실을 말로 하기 어려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웃집 사람은 '수기치(雉)'와 '삼해주(三亥酒)'를 가져 온 '건넨 집 져 사ᄅᆞᆷ'과 소를 빌려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내용을 말하며 화자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3. 소 빌리기에 실패한 화자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절감하고, 농사를 그만두고 자연에 은거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은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대승(戴勝)'의 울음소리를 자신의 한을 돋우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② 화자는 평소에는 즐기던 농민들의 노랫가락에도 전혀 흥겨움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더 큰 상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화자는 날이 좋은 쟁기를 바라보며 '가시 엉긴 밧'도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⑤ 현실의 곤궁한 삶에 지친 화자는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서 여생을 즐기기로 한다. '풍월 강산'은 화자의 '강호(江湖) **흔 쏨**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4. 화자는 농사를 그만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누항(陋巷)'과 '셔홉 밥 닷홉 죽(粥)'은 모두 현실에서 화자가 겪고 있는 곤궁한 삶을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들이다.

② '안빈일념(安貧一念)'은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겠다는 생각'을 뜻하는 말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통한다. 화자는 가난한 생활 형편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③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한 상황은 먹고사는 것이 거리낌이 되는 상황으로, ㉠에서 화자는 이러한 궁핍한 현실 때문에 '장부(丈夫) **뜻**'을 현실에 옮기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⑤ '단사표음(簞食瓢飮)'은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것을 뜻하는 '온포(溫飽)'와 대비된다. 화자는 '안빈낙도'의 실천이 '온포'에 없으며 '단사 표음'으로 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05 연행가

1. ③ 2. ③ 3. ③ 4. ⑤

홍순학, 「연행가(燕行歌)」

작가가 25세 때 고종의 가례 책봉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다녀와서 쓴 기행 가사로, 청나라의 문물과 풍속을 예리한 관찰력과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필치로 그려 낸 작품이다.

- 갈래: 가사(기행 가사, 장편 가사, 사행 가사)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직설적, 사실적, 관찰적
- 주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견문과 여정
- 특징: ① 중국 고사나 한자어보다는 소박한 표현이 사용됨.
  ② 존명 배청(尊明排淸,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배척함.) 의식을 드러냄
  ③ 치밀한 관찰력으로 이국(異國)의 문물과 풍속, 인물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구성: 서사 1 – 가례 책봉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된 기쁨
  서사 2 – 송객정에서의 전별연과 나라를 떠나는 마음
  서사 3 – 환송객들의 전송과 도강을 준비함.
  본사 1 – 호인들의 외양과 생활 모습
  본사 2 – 청나라 여인들의 외양과 옷차림

1. 이 작품은 작가가 청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을 노래한 가사로, 치밀한 관찰력으로 청나라 사람들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중국 고사나 한시를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 | ×]
› 중국 고사나 한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자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 ×]
› 이 작품은 관찰을 통한 대상 묘사가 주를 이루며, 대화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중간에 호인들이 소국 사람들이 왔다고 저희들끼리 수군대는 것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을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돋보인다.
[○ | ×]
›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나 그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⑤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 ×]
› 이 작품은 청나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인상과, 여정 중에 느낀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2. [A]에서는 공명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화자의 출세로 인한 흡족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B]에서는 전별연의 구슬픈 분위기와 사신의 길을 가게 되어 나라를 떠나면서 화자가 느끼는 애잔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3. ㉡은 '좁은 소매가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나들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호인들의 의복에 대해 화자가 관찰한 바를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허례허식에 얽매이지 않고 검소한 청인들의 생활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은 앞서 언급된 가례 책봉에 대한 화자의 의견으로, 화자는 가례 책봉을 국가의 큰 경사이고 백성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가례 책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④ ㉣은 호인들의 복식과 흡연 풍습 등을 보던 화자가 그들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대해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청나라 여인들의 옷차림을 묘사하면서 남자의 옷차림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남녀 호인을 모두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⑤는 '뭐라고 인사하나 한 마디도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장기간 노정으로 인한 고단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호인들과 언어가 달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오답 분석

① '의복이 이치에 맞지 않아 처음 보기 놀랍도다'라는 뜻으로, 화자의 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땋아 늘어뜨려'라는 뜻으로, 변발에 대한 묘사를 세밀하게 하여 호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④ 호인들의 생활 문화를 은근히 멸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청인들에 대해 민족적 우월감을 내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7쪽

06 규원가

1. ⑤ **2.** ④ **3.** ③ **4.** ③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소식마저 끊어진 채 밖으로만 나다니는 남편을 그리움과 원망 속에서 기다리는 한 여인의 한과 슬픔, 운명적 체념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낙구의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ᄒᆞ여라'라는 구절은 임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갈래: 가사(내방 가사)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원망적, 한탄적
- 주제: 봉건 제도하 규방 여인의 한(恨). 또는 원정(怨情)
- 특징: ①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처량하고 구슬픈 심리를 표현함. ◤ 소상 야우의 댓소리 섯도ᄂᆞᆫ ᄃᆞᆺ, 화표 천 년의 별학이 우니ᄂᆞᆫ ᄃᆞᆺ
  ② 대조, 대구, 비유, 문답, 미화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함.
  ③ 감정 이입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실솔이 상(床)에 울 제, 새소리 더욱 설다
  ④ 상황의 대조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함. ◤ 견우직녀(일 년에 한 번씩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남.) ↔ 임과 화자(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짐.)
- 구성: 서사 1 – 자신의 늙음을 한탄함.
  서사 2 – 어린 시절의 결혼에 대한 환상과 실제 결혼 생활
  서사 3 – 세월의 덧없음과 늙은 자신에 대한 한탄
  본사 1 –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
  본사 2 –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한
  본사 3 – 거문고를 타며 시름을 달래 보지만 더욱 애가 끊어짐.
  결사 – 임(남편)을 서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함.

1.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고 체념할 뿐, 그것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 ×]
› '삼생의 원업'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 | ×]
› 임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을 '실솔'과 '새소리'에 이입하여 토로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 ×]
›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괼소냐 / 스스로 참괴ᄒᆞ니 누구를 원망ᄒᆞ리'에서 아름다움과 젊음을 잃은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④ 특정 상황과 대비하여 화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 ×]
› 임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견우직녀를 대비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2. '백마 금편'은 남편의 호화로운 행색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기다림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부모님이 자신을 기를 때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인 '공후 배필'까지는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인 '군자호구'는 되기를 바랐다고 했으므로, '공후 배필'은 이상적 바람이며 '군자호구'는 현실적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장안 유협'은 '장안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 '경박자'는 말 그대로 경박한 사람이므로 모두 남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③ '설빈 화안'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이고, '면목가증'은 모습이 보기에 싫다는 의미이므로 예전의 곱던 얼굴이 지금은 미워진 얼굴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열두 째'와 '설흔 날'은 남편 없이 여러 해를 지낸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시간을 표현한 말이라 할 수 있다.

3. '천상의 견우직녀'는 오랫동안 임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달리 일 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슬픔을 대변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보기〉의 화자는 임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나,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상황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작품의 화자는 추해진 자신의 모습 탓에 임의 사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자신의 탓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을 '장안 유협 경박자'라고 하면서 신의 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의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의 화자는 남편 없이 홀로 독수공방하는 여인이고, 〈보기〉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홀로 있는 여인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임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임을 '장안 유협 경박자'라고 하며 경박하고 신의 없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달'을 임으로 생각하는 등 임을 절대시하고 있다.
⑤ 이 글의 화자는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음을 언급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몇 해째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향기 나는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면 반기실까 모르겠다면서 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 창고

「규원가」와 「사미인곡」·「속미인곡」

	「규원가」	「사미인곡」·「속미인곡」
공통점	• 화자가 모두 임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임. •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	
차이점	• 임을 원망함. • 임을 경박하고 신의 없는 대상으로 그림. •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반발함.	• 임을 절대시함. •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림. • 임의 사랑을 갈구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임.

80쪽

07 농가월령가

1. ④ 2. ⑤ 3. ③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이 작품은 월령체(月令體) 노래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가사로, 권농을 주제로 하여 농가에서 일 년 동안 할 일을 각 달의 순서에 따라 읊었다.
• 갈래: 월령체 가사(전 13장)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교훈적, 계몽적
• 주제: 각 달과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세시 풍속 소개
• 특징: ① 명령형, 청유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계몽성을 높임. ◤ ~ᄒᆞ소(ᄒᆞ쇼): 명령형 어미, ~ᄒᆞ셰: 청유형 어미
② 농촌 생활과 관련 있는 어휘를 사용함. ◤ 발치, 망구, 다락키
③ 대구법, 직유법, 은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 대구법: '아ᄎᆞᆷ에 안기 ᄭᅵ고'와 '밤이면 이슬 ᄂᆞ려' / '백셜 가튼 면화송이'와 '산호 가튼 고초다릭'.
◤ 직유법: 백셜 가튼, 산호 가튼
④ 농촌의 생활상을 직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함.
• 의의: ① 조선 시대 생활사 및 풍속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② 농가의 월중 행사표로서의 기능을 함.

1. 앞 구절의 말을 다시 다음 구절에 연결시켜 연쇄적으로 이어 가는 방법인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분석
①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 ×]
› 이 작품은 4음보의 연속체를 써서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 | ×]
› '백셜 가튼, 산호 가튼'과 같이 직유법을 활용하여 목화송이와 고추 열매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③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 ×]
› '아ᄎᆞᆷ에 안기 ᄭᅵ고, 밤이면 이슬 ᄂᆞ려'와 같은 표현은 대구에 해당한다.
⑤ 열거법을 활용하여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 | ×]
› '-고, -오' 등의 어미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작품은 농촌에서 계절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훌륭한 선비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명주 천으로 부모님의 수의를 장만한 다음에 자녀들의 혼수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② 가을을 맞아서 해야 할 일을 열거하는 것은 물론 추석이나 며느리의 근친 등 농가의 풍속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③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드린 일 공생ᄒᆞ다'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알찬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앞부분에서 가을을 맞은 농촌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이어 '귀ᄯᅩ람이 말근 쇼ᄅᆡ 벽간에 들거고나'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3. '밤', 'ᄃᆡ츄'는 아이들 차지인데, 잘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팔월의 명절인 추석의 풍속과 명절 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발치', '망구', '다락키'와 같이 당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한 농기구를 제시하여 농업에 대한 민속학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담배'와 '녹두'는 농사를 지어 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환금성이 높은 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상업 양상과 화폐 경제의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⑤ 작가가 직접 경기도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실학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그의 실제 경험이 창작의 바탕이 되었다는 〈보기〉의 내용과 팔월을 맞아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정감 있는 농촌의 풍경을 나타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VI 민요 · 잡가

84쪽

01 정선 아리랑 / 원산 아리랑

1. ② **2.** ② **3.** ③ **4.** ⑤

(가)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강원도 정선 산간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담긴 민요로, 우리나라 3대 아리랑 중 하나이다. 향토색이 잘 드러나 있고 지역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 갈래: 민요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서정적, 애상적
- 주제: 정선 사람들의 삶의 애환
- 특징: ① 정선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과 정서를 담고 있음. ◤ 명사십리, 정선이 좋다고 ~ 어금니 다 빠졌구나, 정선의 구명은 ~ 산만층층하네.
  ② 4음보의 율격과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 아리랑 아라리요 ~ 나를 넘겨 주게
  ③ 각 연에 독립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되어 병렬적으로 구성됨.
  ④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함. ◤ 해당화, 두견새
  ⑤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 '명사십리·해당화'와 '모춘 삼월·두견새' / '지는 해'와 '가시는 임'이 대구를 이룸.
  ⑥ 해학적 표현을 통해 정선에서의 가난한 삶을 드러냄. 절치기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
  ⑦ 대조를 통해 힘든 현실을 강조함. ◤ 무릉도원(이상향) ↔ 산만 충충하네(고달픈 현실)
- 구성: 1~4행 – 해당화와 두견새를 보며 느끼는 애상감
  5~8행 – 이별한 임에 대한 원망
  9~12행 – 떠나는 임에 대한 이해
  13~16행 – 정선에서의 궁핍한 삶
  17~20행 –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척박한 정선

(나) 작자 미상, 「원산 아리랑」

함경도 원산 지방에서 불리는 노래로, 「신고산 타령」이라고도 한다. '신고산'은 경원선의 한 기차역 이름으로, 가사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온 이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1900년대 이후에 널리 불린 것으로 보인다.

- 갈래: 민요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서정적, 애상적
-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 한탄
- 특징: ① 구체적인 지명이나 신문물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함. ◤ 신고산, 구고산, 함흥 차 등
  ②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머루·다래 ↔ '나'·임
  ③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함. ◤ 어랑어랑 ~ 내 사랑아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냄. ◤ 우루루, 우수수, 팔라당, 비비배배 등
  ⑤ 대구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의 정서를 강조함. ◤ 삼수갑산 머루 다래는 ~ 얽으래 섧으러지느냐 / 상갯골 큰애기 ~ 기다리고, 삼천만 우리 동포 ~ 기다린다
  ⑥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부각함. ◤ 청각적 심상: 함흥 차 가는 소리, 귀뚜라미 슬피 울어, 비비배배 우노나
  ⑦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우울함을 심화시킴. ◤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 다 썩이네,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배배 우노나
- 구성: 1~3행 – 기차 소리에 떠날 채비를 하는 임의 모습
  4~6행 – 이별의 정한과 외로움
  7~9행 – 떠난 임에 대한 기다림
  10~12행 – 떠난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
  13~15행 – 화자를 떠나는 임의 모습
  16~18행 – 임과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

1. (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인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세속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가 ○, ✕ | 나 ○, ✕〕
» (가), (나)에서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가 ○, ✕ | 나 ○, ✕〕
» (가)에서는 정선의 고달픈 삶, (나)에서는 통일을 기다리는 상황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해결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삶의 괴로움을 해학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가 ○, ✕ | 나 ○, ✕〕
» (가)에서 거친 알곡으로 만든 음식을 먹다가 이가 빠졌다고 하며 정선에서의 가난한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을 승화(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하려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 해학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가 ○, ✕ | 나 ○, ✕〕
» (가)와 (나) 모두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사회적 규범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을 주지 말라는 것은 '강낭밥 사절치기'를 해야 하는 정선의 궁핍한 삶 때문인데, 이를 어금니가

다 빠졌다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반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임이 떠나는 상황을 원치 않아도 져야 하는 서산의 해에 빗댐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임에 대해 이해하려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정선이 예전에 '무릉도원'이라 일컬어졌지만 현재는 '산만 충충'하다고 표현하여 이름과 달리 첩첩산중인 정선의 척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근대 문물인 '함흥 차'의 소리를 '우루루'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임과 이별해야 하는 화자의 상황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산새들이 처량하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울적한 심회를 산새라는 자연물에 이입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가)에서는 '명사십리·해당화'와 '모춘 삼월·두견새', '지는 해'와 '가시는 임'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나)에서는 '상갯골 큰애기 정든 임 오기만 기다리고 / 삼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가 대구를 이룬다. 이러한 대구적 표현을 통해 (가)와 (나) 모두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는 '아리랑 아라리요 ~ 나를 넘겨 주게'를, (나)는 '어랑어랑 어허야 ~ 내 사랑아'를 후렴구로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며 흥을 돋우고 있다.

② (가)에서는 '해당화'나 '두견새'처럼 봄이 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연물을 화자의 슬픔을 몰라주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함으로써 슬픔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머루 다래'를 임과 헤어진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설정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는 '야'와 같은 조사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우루루', '우수수', '팔라당', '비비배배'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가)와 (나)는 모두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민중들이 겪은 현실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 분석

〈보기〉는 (가)와 (나) 작품의 갈래인 '민요'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민요의 갈래적 특성과 함께 주제, 형식 등 양식적인 특징을 설명하여 (가)와 (나)의 감상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 따르면 민요의 특성상 채록자와 제보자가 달라진다면 비슷한 내용이라도 제시된 작품과 기록이 달라진 작품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보기〉에서 민요는 민중들이 그들의 일상과 그에 대한 희로애락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였고, (가)와 (나)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민요는 민중 사이에서 불려 오던 노래이고 형식이 비교적 단순하고 언어가 평이하다고 하였으므로, (가)와 (나) 또한 자연스럽게 익혀서 쉽게 부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정선', (나)에서는 '신고산', '구고산', '상갯골' 등과 같은 지명을 사용하여 향토성과 현장성을 드러내고 있다.

86쪽

02 유산가

1. ③ **2.** ③ **3.** ④ **4.** ④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화창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노래한 작품이다.

- 갈래: 잡가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풍류적, 감각적, 묘사적
- 주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완상
-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함. ◤ 만산홍록들은 ~ 자취 없이 날아난다(시각적 이미지), 콸콸, 주루루룩, 쐴쐴, 으르렁 콸콸(청각적 이미지)
  ② 대구법, 열거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함. ◤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 화간접무는 분분설이라(대구법), 천방져 지방져 ~ 넌출지고 방울져(열거법), 수정렴 드리운 듯(비유법), 펄펄펄(의태어), 콸콸, 주루루룩, 쐴쐴, 으르렁 콸콸(의성어)
  ③ 우리말 표현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음. ◤ 주곡제금(두견새), 적다정조(소쩍새):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문으로 표기함.
- 구성: 서사 – 산천 경개 구경을 권유
  본사 1 – 봄의 화려한 경치의 아름다움
  본사 2 – 봄의 산과 폭포의 아름다움
  결사 – 무궁한 자연 경치 예찬

1. '원산(遠山)'의 '첩첩(疊疊)'한 모습을 그리다가 '폭포수(瀑布水)' 물결이 흘러가는 세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데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 ⊗]
›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대조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 ⊗]
› 이 작품은 아름다운 봄 산의 경치에 대한 감상을 노래하고 있을 뿐, 풍자의 기법으로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나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 ⊗]

› 이 작품은 봄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와 유흥적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지 않는다.

⑤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 ⊗]

›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예찬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을 뿐, 점층적인 표현을 써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2. ㉢은 꽃 속의 나비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로, 사라져 가는 봄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은 꽃이 만발하고 만물이 화창하게 피어난다는 뜻으로, 고전 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투적인 한문구인데, 이를 통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봄의 경치를 구경하자고 권유하는 모습으로, 이를 통해 봄을 즐기고 싶어 하는 화자의 유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첩첩', '층층', '낙락', '우줄우줄' 등은 의태어로, 이를 통해 자연 경치를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또 '장송'이 '광풍'에 춤을 추는 것으로 의인화하여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⑤ ㉤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봄철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화자의 감흥을 더욱 깊게 하고 있으며, 무궁한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데서 봄 경치 구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와 화자의 태도를 고려할 때 '기산 영수'(ⓓ)는 화자가 구경하는 곳이 속세와 떨어진 별천지와도 같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죽장망혜'(ⓐ)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간편한 차림새로 자연 경치를 구경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자연을 즐기려는 화자의 소박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무릉도원'(ⓑ)이 이상향을 뜻한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는 화자가 즐기는 자연이 이상향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연명오류(ⓒ)'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고려하면, 화자가 감상하는 자연이 매우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예찬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⑤ '적다정조(ⓔ)'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솥이 적다'로 표현한 것은 언중(言衆)의 풍년을 희구하는 마음을 새의 울음소리에 연관시켜 표현한 것이다. 즉, 솥이 적다고 느껴질 정도로 풍년이 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일년풍'이라는 표현과 호응하면서 풍년에 대한 기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4. 폭포수를 수정으로 만든 발에 비유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 분석

〈보기〉는 「유산가」의 갈래인 '잡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잡가의 갈래적 특성과 함께 표현상의 특징, 어휘 등을 설명하여 작품의 감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분석

① '만산홍록'과 '창송취죽'과 같은 한자어 사용은 잡가의 향유층 중 양반들의 취향과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유상앵비'와 '화간접무', '편편금'과 '분분설'이 대구를 이루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예 아니냐'가 세 번에 걸쳐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함으로써 음악적 효과와 아름다운 봄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⑤ 서민들이 생활에서 사용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감상 대상인 폭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지식 창고

잡가

가사의 정형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갈래로,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개화기까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유흥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가창된 노래이다. 민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소리 갈래에 속하며, 내용이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전대의 가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층 계급의 의식이 반영된 노래임에도 한시문의 과도한 차용이 나타나는 것은 양반 가사에 대한 모방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에 비해 매우 통속적이며, 민요보다도 창법이 세련되었으며, 노랫말도 독자적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따온 말로 엮어진 것이 많다.

「유산가」의 자유분방함

이 노래의 율격은 4음보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6음보격이 3개나 드러나 있으며, 5음절 이상의 음절이 하나의 음보로 존재하는 등 매우 파격적이다. 이러한 파격은 곧 「유산가」의 노랫말 형식이 그만큼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는 생동감 넘치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강호 자연의 분방하고도 격정적인 세계를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이념이나 현실 생활을 배제하고 현실과 격리된 자연 속의 유흥만을 토로하는데, 이러한 격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유흥이야말로 「유산가」를 전통적인 사대부 시가나 서민 시가와 명확히 구분해 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Ⅶ 복합 실전

89쪽

01 조선 후기 전원 시가에 나타난 농촌 생활 / 전가팔곡 / 농가구장

1. ④ **2.** ① **3.** ④ **4.** ②

(가) 조선 후기 전원 시가에 나타난 농촌 생활

이 글은 조선 후기 전원을 노래하는 작품들과 그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농촌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나) 이휘일, 「전가팔곡(田家八曲)」

향촌에 거처하는 사대부가 자연의 순환 리듬에 맞추어 손수 농사를 짓는 즐거움과 그 보람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연시조이다.

- 갈래: 연시조(전 8수)
- 성격: 전원적, 구체적, 사실적
- 주제: 농촌 생활의 만족감
- 시대: 조선 후기
- 특징: ① 농촌 관련 소재를 통해 화자의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드러냄.
  ② 전원을 은거나 성찰의 공간으로 보았던 이전 작품들과 달리, 농사일을 직접 보고 농부들과 함께하며 농부의 입장에서 그려냄.
  ③ 비유, 대구, 설의 등의 표현법과 청유, 명령 등의 어조를 사용함.
- 구성: 제1수 – 초야에 묻힌 선비로서의 풍년에 대한 기원
  제6수 – 부지런한 하루 농사의 시작
  제7수 – 농부들과 어울리며 먹는 소박한 음식
  제8수 – 귀가하며 느끼는 삶의 만족감

(다) 위백규, 「농가구장(農歌九章)」

농촌 삶의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제시한 연시조로, 사대부인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난 작품이다. 사계절에 따라 전개되는 전형적인 농촌의 일상을 시간의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다. 민요적 어투와 호흡을 통해 노동 현장의 역동성과 협동 정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

- 갈래: 연시조(전 9수)
- 성격: 전원적, 사실적
- 주제: 농사의 즐거움
- 시대: 조선 후기
-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을 취함.
  ② 반복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에 따라 노동요와 같은 느낌을 줌.
  ③ 일상적인 어휘와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고된 농사일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 구성: 제1장 – 비온 뒤에 차례대로 김을 맴.
  제3장 – 논밭의 김을 맴.
  제4장 – 힘든 농사일 뒤 짧은 휴식을 취함.
  제6장 –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흥겨움

1. (다)의 '츠례 지운 닐이니' '미ᄂᆞᆫ 다로 미오리라'는 차례가 정해져 있으니 순서대로 김을 매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사람에게 농사일을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권유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나)의 화자는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밧겻 일 내 모ᄅᆞ고 ᄒᆞᄂᆞᆫ 일 무ᄉᆞ 일고'는 전원에서 생활하는 처사인 화자가 밖의 일을 몰라 '밖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밖의 일은 농사일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농사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즉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 따르면, 화자는 농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선도하고 감독하고 있다. (나)의 '일거라'는 '아해들'에게 새벽이 왔으니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밧 보러 가쟈스라'는 밭을 살펴보러 가자는 것이다. 선도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어나 밭을 살펴보러 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비 골ᄂᆞᆫ 농부들을 진시예 머겨스라'는 일하는 농민이 배고프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하층 농민들과 분리되어 있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⑤ (가)에서 (다)의 화자는 농사일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다)의 '쫌은 든ᄂᆞᆫ 대로 듯고'는 더운 여름날에 농사일을 하던 화자가 땀을 흘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나)의 '이 중(中)의 즐거운 ᄠᅳᆺ을 닐러 무슴 ᄒᆞ리오'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즐거운 뜻이 너무 크기에 그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제5장에서 '네오 내오 다ᄒᆞᆯ소냐'와 같이 말하며 일을 하다가 밥을 먹고 잠깐 잠을 자는 즐거움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나 ○, ✕ | 다 ○, ✕〕
› (나), (다)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하는 영탄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속세와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 ○, ✕ | 다 ○, ✕〕
› (나)에서 속세와의 거리감을 부각하는 점층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의 경우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속세와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 ✕ | 다 ○, ✕〕
›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 ○, ✕ | 다 ○, ✕〕
› (나), (다) 모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는 해가 지는 무렵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해가 지면서 풀 끝에 이슬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화자의 생활 공간이 속세와 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세상의 ᄇᆞ린 몸'은 세상에서 버려진 처지라는 의미인데,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벼슬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나)의 화자는 '우국성심'에서 '년풍'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③ ⓒ는 소리를 내는 '온갖 것들'을 의미한다. 새벽에 새들이 재잘거리며 소리를 내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으므로 활력이 넘치는 새벽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는 흥취가 고조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느끼는 자족감과 그로 인한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4. 〈보기〉에서는 '앞에 사람 잘도 맨다'와 '뒤에 사람 떨어진다'와 같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그와 같은 대비를 통해 농사일에 집중을 보다 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① (다)의 '마조 잡아 둘너 내자'는 함께 힘을 모아 김을 매자는 것으로 힘을 모아 일하는 태도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기〉의 '일심동력 힘을 써서'도 힘을 모아 일하는 태도를 독려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농사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둘너 내자'와 같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보기〉에서도 '모여 가자', '가세' 등과 같이 청유형 표현을 사용한 노랫말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둘너 내자', '도라가쟈' 등의 어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모여 가자', '가세' 등의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 어구를 반복하면 리듬을 자아내어 여러 사람이 함께 가창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⑤ (다)의 화자는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다)에서 'ᄆᆡ오리라', '둘너 내쟈' 등의 주체가 화자가 된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모두가 각자 화자처럼 노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보기〉에서도 일을 하는 주체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다)와 〈보기〉의 농요 모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화자의 상황에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92쪽

02 구우 / 잠노래 / 탄궁가

1. ③ **2.** ③ **3.** ④ **4.** ②

(가) 정약용, 「구우」

장마철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식인의 고뇌를 담고 있는 한시이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지내면서 장마철 서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직접 보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 현실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내비치고 있다.

- 갈래: 한시(5언 율시)
- 성격: 비판적, 우회적
- 시대: 조선 후기
- 주제: 피폐한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감
- 특징: ① 장마철 농촌의 가난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② 궁핍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남.
- 구성: 1, 2구 – 가난한 삶
  3, 4구 – 집과 들판의 황량한 모습
  5, 6구 – 글 짓는 선비의 수심
  7, 8구 – 궁핍한 현실에 대한 한탄

(나) 작자 미상, 「잠노래」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던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민요이다.

- 갈래: 민요, 노동요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해학적, 서민적
- 주제: 밤 새워 바느질하는 삶의 고달픔
- 특징: ① 잠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함.
  ② 화자와 대조적 처지의 사람을 제시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함.
  ③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표현을 씀.
- 구성: 1~3행 – 염치없이 오는 잠
  4~10행 – 자신을 찾아오는 잠에 대한 원망
  11~16행 – 저녁 먹고 바느질을 시작하자 마자 또 찾아드는 잠
  17~19행 – 잠으로 인해 눈이 희미해짐.

(다) 정훈, 「탄궁가(嘆窮歌)」

'탄궁가'는 가난함을 한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선비의 가난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안분지족의 태도를 그리고 있다.

- 갈래: 가사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사실적, 체험적
- 주제: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 특징: ① 화자의 궁핍한 상황을 부각함.
  ②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높임.
  ③ 가난을 '궁귀'로 의인화하여 가난한 상황을 희화화함.
- 전체 구성: 서사 – 곤궁한 생활에 대한 한탄
  본사1 – 농사조차 어려운 집안 상황
  본사2 – 종들조차 무시할 정도로 가난한 살림
  본사3 – 명절이나 제사도 지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에 대한 한탄(이하 본문 제시 부분)
  결사 – 가난한 삶에 대한 체념과 수용

1. (나)에서는 '잠'을 의인화하여 '염치 불구', '검치 두덕'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와 같이 표현하여 요술을 피우는 존재로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의인화된 잠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에서는 '가난'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궁귀'라고 칭하고 '원노ᄒᆞ'며 말하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가난'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가난이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와 (다)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작중 청자로 설정하

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다)는 자연물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가 ○, ✕ | 다 ○, ✕〕

› (가)의 '썩은 지붕에서는 노래기 떨어져 기어가고 / 황폐한 밭에는 팥꽃이 남아 있네.'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가 당면한 궁핍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연물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다)의 경우 쓰지 못한 채로 있는 '기저', '부증' 등의 현재 모습을 제시하여 화자가 당면한 궁핍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물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는 독백체의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경우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와 말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다)는 화자가 '궁귀'와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⑤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의 '어찌 괴로워만할 것인가', (다)의 '몸을 어이 ᄀᆞ리올고', '셜워 므슴ᄒᆞ리' 등은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A]의 썩은 지붕에서 벌레가 떨어져 기어 다니고 황폐한 밭에 팥꽃이 남아 있는 풍경은 도탄에 빠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부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B]의 오랫동안 베틀의 북과 떡 찌는 시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① [A]와 [B]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다)의 화자는 심경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와 [B] 모두 화자의 심경 변화와 관련이 없다.

④ (가)의 화자는 (다)의 화자와 달리 현실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가)의 화자는 현실로 인한 고뇌에 빠져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나,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와 [B]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B]를 말하기 이전부터 (가)와 (다)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은 가난한 처지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은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릴 변변한 옷이 없다는 것이다. 겨울이 되더라도 따뜻한 옷은커녕 마땅히 입을 옷이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을 계절에 맞추어 입을 옷이 변변치 않은 처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은 궁핍한 처지로 인해 험한 몰골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다고 탄식하는 것이므로, 궁핍함 때문에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의 '자소지로'의 의미는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난이 화자와 희로우락을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늘 가난한 처지에서 생활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화자는 빈천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으로 여기며 가난에 대해 서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으로 여기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4. (가)에서 '비 오래 온다고 해서 어찌 괴로워할 것인가'는 '비'만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현실을 힘들게 만든 주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날이 맑아도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비'를 괴로움의 원인으로 여기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비'를 농촌을 도탄에 빠트린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유배지에 와 있다. 유배지에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궁벽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궁핍한 처지라 찾아오는 이가 없어 '날마다 의관이 필요 없다'고 말해 그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나)의 화자는 사람들의 처지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주야로 한가해 혼자서 깊은 밤을 허송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는 반면, 화자 자신은 일이 바빠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잠이 찾아와 일을 하지 못해 괴롭다는 것이다.

④ (나)에서 잠이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요술을 피운다고 말하는 것은 잠이 오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된 일상으로 인한 애환을 해학을 통해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⑤ (다)의 '인위(人威)로 절피(絕避)ᄒᆞ며 좀쇠로 녀흴너냐'는 사람의 힘으로 가난과의 관계를 끊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탄식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화자가 느끼는 괴로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3 신도가 / 방옹시여 / 독락당 / 조선 시대 시조, 가사, 악장 갈래의 특징

1. ③ **2.** ④ **3.** ⑤ **4.** ③

(가)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수도인 한양의 형세를 칭찬하고 임금의 덕이 무한함을 찬양한 작품이다. 전반부는 한양의 빼어난 모습과 새로운 왕조를 연 태조의 성덕을 칭송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배산임수의 명당 터에서 태조의 공덕을 기리며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이 작품은 새 도읍지인 한양에 대한 불안한 민심을 해소하기 위해 한양 새 도읍이 임금의 덕치와 백성들의 교화로 길이 이어갈 터전임을 노래한 목적 문학이다. 우리말로 지어져 국문학사에서 「용비어천가」와 함께 악장 문학으로서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 갈래: 악장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송축가, 예찬적, 기원적
- 주제: 새 도읍의 빼어남과 태조의 성덕 예찬
- 특징: ① 고려 가요의 형식과 유사한 3음보의 율격을 지님.
  ② 여음 '아으 다롱다리'를 전후하여 '전대절 + 후소절'의 형식을 취함.
  ③ 감탄형 어미가 포함된 '–샷다', '–ㄴ뎌', '–쇼셔' 등을 사용하여 새 왕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을 강조함.
- 구성: 1, 2행 – 새로운 도읍의 빼어난 모습
  3~6행 – 태조의 창업과 도성에 대한 찬양
  7, 8행 – 태조의 만수무강 기원

(나) 신흠, 「방옹시여(放翁詩餘)」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흠이 은거 상황에서 창작한 시조 작품 30수를 모아 놓은 것으로, 여기에 수록된 5수는 두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갈래: 시조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자연 친화적, 애상적
- 주제: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의 흥취와 자긍심, 연군지정
- 특징: ①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17, 18수
  ② 대유법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드러냄.
  ③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임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냄. ◤ 님 ↔ 화류
  ④ 설의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ᄎᆞᄌᆞ리 뉘 이스리, 긔 벗인가 ᄒᆞ노라 등
- 구성: 제1수 – 세상과 단절하고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삶
  제8수 –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삶의 흥취와 자긍심
  제17수 – 그리운 임의 부재(不在)에 대한 한탄
  제18수 – 임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과 시름
  제19수 –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임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

(다) 박인로, 「독락당(獨樂堂)」

무관으로서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늙어서야 독락당을 찾은 작가가 회재 이언적의 자취를 더듬으며 선비로서의 길을 닦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 갈래: 가사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예찬적, 추모적
- 주제: 독락당 경치에 대한 예찬과 회재 이언적에 대한 추모
-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자연을 예찬하며 그 속에서 대상(회재 이언적)의 흔적을 찾아 추모함. ◤ 독락당을 찾아옴. → 독락당 주변 경치를 돌아봄(양진암 → 관어대).
  ② 한자 성어와 중국 고사를 많이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함. ◤ 왼쪽엔 안증(顔曾), 오른쪽엔 유하(游夏)
  ③ 설의법, 의인법, 비유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 구성: 1~10행 – 독락당의 경치와 이언적의 모습
  11~28행 – 양진암과 관어대에서의 감회

(라) 조선 시대 시조, 가사, 악장 갈래의 특징

이 글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시가 문학인 시조와 가사, 악장 갈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 (가)~(다)는 모두 공간적 배경인 '한양', '산촌', '독락당'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계절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다) 모두에서 화자는 공간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다) 모두에서 자연물은 나타나지만, 이는 풍경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일 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나)의 1, 17, 18수만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 ○, × | 나 ○, × | 다 ○, ×〕
» (가)~(다) 모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2. (나)의 제1수에서 '일편명월'은 자연을 뜻하는데, 화자가 이를 자신의 '벗'이라 칭하는 데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제18수에 언급된 '시름'은 그리운 임의 부재에서 오는 정서를 말한 것이므로, 이 두 수에서 자연 친화와 풍류 추구라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신도'는 새 도읍지, 즉 앞서 언급된 '양쥬'인 한양을 의미하고, '형승'은 그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를 의미한다.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데서 (가)의 창작 동기를 엿볼 수 있는데, (라)의 설명을 고려하면, (가)는 조선 개국 초기에 창작된 문학 갈래인 악장으로 볼 수 있다.

② '셩왕'은 성스러운 임금을, '셩ᄃᆡ'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므

로, (가)는 임금의 성덕에 대한 예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라)를 고려할 때, (가)는 국가의 송축을 주제로 하는 목적성이 강한 갈래인 악장임을 알 수 있다. (라)에서 악장은 국가 의식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제작되거나 새로운 악장으로 교체된다고 하였으므로 국가 의식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제1수와 제8수는 자연을 벗으로 삼아 산촌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고, 제17~19수는 '임', 즉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의 설명을 고려하여 (나)를 보면, 각각은 3장 6구의 평시조이지만 이와 같은 평시조를 여러 편 연속으로 이어 놓은 것으로 보아 연시조임을 알 수 있다.

⑤ (라)를 고려하여 시조인 (나)와 비교할 때, 행수에 제한이 없는 가사이므로 (다)는 형식적 요건이 (나)에 비해 자유롭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기국셩왕'(ⓐ)은 나라를 연 거룩한 임금을 의미하며, (가)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반면 (나)에서 화자는 떠난 '임'(ⓑ)을 그리워하며 그의 부재로 인해 깊은 시름을 느끼고 있다.

오답 분석

①, ④ (가)에서 ⓐ는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우러러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은 아니다. (나)에서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그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와 화자의 거리는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예찬의 대상으로는 표현되어 있으나 그리움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 ⓑ는 화자와 함께하지 않고 부재로 인해 그리움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③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와 ⓑ에 대해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4. ㉢은 '사립문을 열지 마라. 이렇게 묻혀 사는 나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라는 의미로,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아올 이를 기다리는 화자의 현재 심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 분석

〈보기〉는 (가)~(다)에 드러난 화자의 인식을 작가 및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에서 '양쥬'는 한양의 옛 이름으로, 이 구절은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었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보기〉를 보면 (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화자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의 '만세를 누리쇼셔'는 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구절로, 송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변함없는'은 옛날과 변함이 없는 경치를 반가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성현의 일'이라 함은 학문을 수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도모했던 회재 이언적의 삶의 흔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지식 창고

악장 「신도가」

악장은 넓은 의미로는 궁중 음악에 사용된 노래를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특정한 시가들에 붙여진 역사적 갈래의 이름으로 쓰인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악장들은 대부분 새 왕조를 건설한 창업주나 왕의 성덕을 기리고, 새로운 문물제도를 과시하거나 새로 만든 도읍을 찬양하며,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등 송축가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신도가」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이 조선 건국과 새 도읍을 송축하고자 지은 악장으로, 그 안에는 고려 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

98쪽

04 개를 소재로 한 시조의 전승과 변모

1. ⑤ **2.** ⑤ **3.** ③ **4.** ①

개를 소재로 한 시조의 전승과 변모

이 글은 '개'를 소재로 한 시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변모해 간 양상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문학 작품의 변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평설이다.

- 갈래: 평설(평론)
- 성격: 설명적, 논증적
- 주제: 문학 작품이 전승되며 나타나는 변모의 양상과 그 특징
- 특징: ① 동일한 소재를 다룬 작품의 변천과 양상을 다룸.
  ② 사례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 구성: 1 –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문학
  2 – 일본 자기에 씌어진 시조와 『고금명작가』에 수록된 시조 비교
  3 –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작품의 변모 양상
  4 –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의 변모

[인용 시조 풀이: (가), (나) 개를 소재로 한 시조]

멋진 남성('두목지 호걸')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개에게 짖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호걸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화자는, 남성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개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갈래: 평시조
- 성격: 서정적, 연정가
- 주제: 호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
- 특징: 개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호걸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 구성: 초장 – 개에게 짖지 말라고 부탁함.
  중장 – 개에게 짖지 말라고 부탁한 이유를 설명함.
  종장 – 부탁의 결과 제시

[인용 시조 풀이: (다) 작자 미상,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소박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노래이다.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사설시조로, 초장과 종장은 원래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중장은 그 파격이 충분히 인정될 만큼 길이가 확장되어 있다. 형식적 파격과 함께 내용에서도 기존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볼 수 없었던 현실에서 흔히 겪는 일상적인 사실이나 감정을 소재로 하여, 화자의 감정을 참신하고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연정가, 해학적
-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 특징: ①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함.
  ② 개의 동작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함.
- 구성: 초장 – 얄미운 개 소개
  중장 – 미운 임을 반기고 고운 임을 돌아가게 하는 개의 얄미운 행동
  종장 – 쉰밥이 생겨도 얄미운 개에게는 먹이고 싶지 않음.

[인용 시조 풀이: (라) 작자 미상, 「살구」]

(라)의 작품은 (다)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이나 주제 등을 바꾸어 새롭게 재창작한 작품이다. (다)에 1907년 이루어진 한일 신협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부여하여, 한일 신협약에 찬성한 정미칠적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를 위해 '개'를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정미칠적)로, '미운 임'을 '낯선 타처 사람'(일본인)으로, '고운 임'을 '낯익은 집안사람'(조선인)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다)와 (라)의 관계는 유사한 작품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어떤 상황에 놓이는지에 따라) 어떻게 변모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현실 비판적, 비유적
- 주제: 한일 신협약에 찬성한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
- 특징: '정미칠적'을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에, 일본 사람을 '낯선 타처 사람'에, 조선 사람을 '낯익은 집안사람'에 비유함.
- 구성: 초장 – 얄미운 일곱 마리 개 소개
  중장 – 낯선 타처 사람을 반기고 낯익은 집안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개의 얄미운 행동
  종장 –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워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함.

1. 이 글은 '개'를 소재로 한 시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변모해 간 양상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문학 작품의 변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은 상황에 따른 작품의 변모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지 문학 향유층의 변화 양상은 다루고 있지 않다.

②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문학 작품의 형식이 변화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학 형식이 나아갈 바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문학이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는 문학 표현 기법의 변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형식, 내용 전반에서 나타내는 문학의 변모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종장에서는 설의법(있으랴)을 사용하여 '고운 임'에게 짖는 행위를 하여 남성이 찾아오는 것을 방해한 '개'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개'와 '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분석

① 화자는 '개'의 행동이 남성이 자신을 찾아 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자는 '개'를 얄미워하고 있다.

② 화자의 마음과 반대로 '미운 임'과 '고운 임'을 대하는 '개'의 행동 때문에 남성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③ '미운 임'을 대하는 '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고운 임'을 대하는 '개'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제시하여 '고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본심을 암시하고 있다.

④ '버둥버둥', '캉캉'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개'를 얄미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개'의 행동 때문에 생긴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3. [A]에서 '낯선 타처 사람'을 대하는 '개'의 행동은 정미칠적이 일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보기〉에서 '옥황상제 호소'하는 행동은 기울어 가는 대한 제국을 도와달라는 호소이다. 따라서 이 두 행동은 그 목적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다.

보기 분석

작자 미상, 「가요풍송」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개화 가사로, 국권 수호와 개화의 당위성을 역설한 작품이다.

- **시대**: 1900년대
- **성격**: 비판적, 계몽적
- **주제**: 애국심 고취와 외세 및 매국노 비판
- **핵심어(구) 풀이**
  *떠잇고나 ~ 떠잇고나.: 불안한 상태의 대한 제국
  *놀고 가세 ~ 놀고 가세.: 자신들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각부 대신들에 대한 조롱
  *세상사는 ~ 제일인가.: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풍자
- **구성**: 떠잇고나 ~ 〈중략〉 – 산의 신, 물의 신, 옥황상제에게 대한 제국을 도와 달라고 호소함.
  놀고 가세 ~ 애고지고 흥. – 세태를 외면하고 일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정부 관료를 비판함.

오답 분석

① [A]의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은 비판의 대상이므로, 〈보기〉의 '바로잡아 붙잡는 큰 손'이라는 의미를 지닌 '광부대수'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세태를 외면하고 일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각부 대신'을 비판하고 있고, [A]에서 비판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인물들, 즉 정미칠적에 해당하는 관료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④ [A]에서 '요 일곱 마리'는 '박살할 개'로 비판의 대상이므로

〈보기〉의 '산령 수신'이 통곡하는 현실을 만들어 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⑤ '대한 강산'이 떠 있다는 것은 대한 제국이 위기에 처한 당대 현실을 뜻하므로 [A]에 언급된 '한일 신협약이 체결' 상황과 관련이 있다.

4. ㉮와 ㉯는 모두 「어부가」 계열의 작품으로, ㉮의 초장과 ㉯의 〈추 1〉의 초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을 즐기는 어부의 생애를 긍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어부'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이들로, 두 작품의 화자들은 모두 이러한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보기 분석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하여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풍류적인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5수)** • **시대**: 조선 전기
- **성격**: 풍류적, 자연 친화적
- **주제**: 자연을 벗하는 어부의 한정(閑情)
- **현대어 풀이**

〈제1수〉 이러한 생활 속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랴?
〈제2수〉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는 얼마나 가려 있는고? /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 **핵심어(구) 풀이**

***어부**: 고기잡이.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만경파**: 화자가 '바다'에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인세**: 붉은 먼지로 가득한 세상. ↔ 월백.
***월백**: 달이 밝음. 맑고 순수한 이미지.
***무심**: 속세에 대한 관심이나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

- **구성**: 제1수 – 인간 세상을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삶
  제2수 – 욕심 없이 사는 유유자적한 삶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사대부의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 **갈래: 연시조(전 40수)** • **시대**: 조선 후기
- **성격**: 풍류적, 전원적
- **주제**: 어촌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여유와 흥취
- **현대어 풀이**

〈추(秋) 1〉 세속 밖의 좋은 일이 어부의 생활이 아니더냐? / 배 띄워라. 배 띄워라. / 고기 잡는 노인을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사계절 흥취가 다 좋지만 그중에도 가을 강이 제일이다.
〈동(冬) 4〉 지난 밤 눈이 갠 후에 경치가 달라졌구나. / 노 저어라 노 저어라. / 앞에는 넓고 맑은 바다, 뒤에는 눈 덮인 산 /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인간 세상은 아니로다.

- **핵심어(구) 풀이**

***물외**: 세속을 떠난 곳.
***빈 떠라**: 배 띄워라.
***그림마다 그렷더라**: 어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이어라**: 노를 저어라.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지금의 공간에 만족함.

- **구성**: 추 1 – 어부로 사는 것의 자부심과 가을 강의 흥취
  동 4 –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

오답 분석

② ㉮와 ㉯는 모두 '강호가도(江湖歌道)'의 맥을 잇고 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관심을 두는 자연이라는 소재가 차별화되면서 양식 차원의 변모를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와 ㉯는 모두 연시조이지만 ㉮는 시조의 일반적인 음보와 율격을 지키고 있는 반면, ㉯에서는 일반적인 시조와 달리 각 수에 여음 및 후렴구가 나타난다.
④ ㉮에 쓰인 '무심'은 '속세에 관한 관심이나 욕심이 없는 마음 상태'로, '강호'에 대해 무심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의 〈추 1〉에서는 가을 강의 흥취를 노래하고, 〈동 4〉에서 눈 덮인 강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즉 ㉮와 ㉯ 모두 자연 속에서 누리는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와 ㉯가 사회상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인세'는 '붉은 먼지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러한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다고 하고 있다. ㉯의 '션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는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인간 세상은 아니로다.'라는 의미로,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와 ㉯ 모두 '인세'와 '인간'으로 표현된 세속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주제가 다양화되었다는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